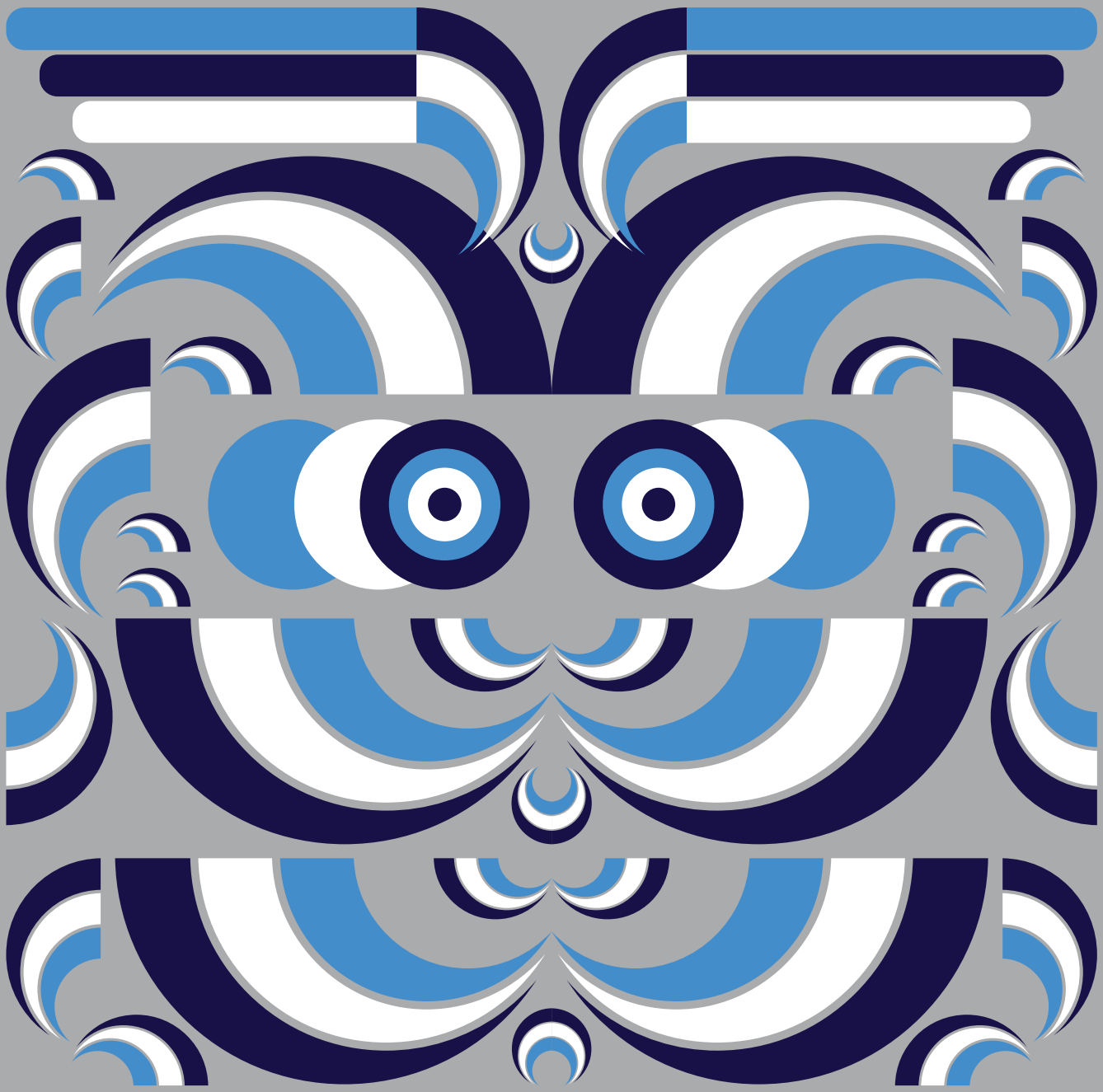
총회 보고서

문화예술의 미래 구상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2025 서울



ISBN: 978-0-9871098-3-5

작성자: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의뢰: 메레디스 오켈(Meredith Okell))

영/한 번역: 신혜린(Haerin (Helen) Shin)
영어/스페인어 번역: 마리아 파스 모레노(Maria Paz Moreno)
스페인어 검수: 솔레다드 에르난데스 토콜(Soledad Hernandez Tocol) - 라도수르(Ladosur)

디자인: 파이카

초판 발행: 2025년 7월, 대한민국, 서울

©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복제, 배포, 전시 조건:
- 저작자 명시
- 상업적 용도의 사용 금지
- 보고서의 변경, 변형, 수정 금지

권장 출처 표기:

보고서: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2025,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

(Summit Report: 10th World Summit on Arts and Culture, 2025,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Sydney, NSW)

면책조항:

보고서 작성자 :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보고서 상의 오류, 누락사항, 기재 의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은 전 세계 예술위원회 및 문화부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걸프 지역, 태평양 일대 70여 개국에 소재한 91개 회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IFACCA는 연대, 포용, 상호 호혜, 상호 학습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제적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무국은 회원 기관과 그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로서 호주 국세청에 소득세 면제 자선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회사명은 International Arts Federation Services Pty Ltd이며, 호주 사업자 등록번호(ABN)는 19 096 797 330이다.

ifacca.org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ARKO)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1973년도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2005년, 예술위는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예술위는 다양한 예술분야를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며, 예술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와 지역문화예술지원을 통해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을 통해 가치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개인, 민간, 공공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술위는 현재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기록원,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등 국내외 우수 예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rko.or.kr/eng

Contents

5 들어가는 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 서문: IFACCA

10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한 눈에 보기

14 주요 시사점

16 문화의 다층적 차원과 가치

21 미래 설계를 위한 토대

31 미래의 실현: 실천으로의 길

41 결론: 나침반으로서의 문화

42 참고문헌

44 문화프로그램

46 감사의 말

















왼쪽 위부터: 개막만찬의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월드카페에서 제소니 나가, 병행 5_롱테이블: 공통의 기반 모색: 분열된 세계에서 유대감 재구축하기에서 니우샤 칸모함마디, 오픈 세션의 참가자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네트워킹, 프로그램 북을 열람하는 참가자, 잔치에서 응우옌 프엉 화, 아르코예술극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들어가는 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정책전문가, 창작자, 시민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세계의 동료 여러분을 맞이한 지난 5월은 예술과 문화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공통의 언어라는 믿음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넘어 우정을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 앞에 함께 모인 우리는, 일주일 동안, 오늘날 문화예술이 직면한 과제와 우리가 함께 열어가야 할 내일의 방향을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전 세계 문화예술계가 공동의 책임과 비전을 나눈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날의 기술 발달이 문화다양성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인식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세계를 연결하지만 동시에 소수 민족과 전통적인 공동체 그리고 언어와 기억을 소멸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술이 주는 새로운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지식체계에 도전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탐험하고, 기술과 상생하면서, 예술가로서 기술의 담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지역 간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있게 토론했습니다. 예산, 인프라, 제도, 표현의 자유, 디지털 접근성 등 문화예술을 둘러싼 모든 요소에서 지역 간 구조적인 불평등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단순한 원조나 협력의 문제가 아닌 정의와 재분배 그리고 진정한 문화적 평등의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기후 변화와 전쟁, 난민 문제 역시 예술의 경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예술은 침묵하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하고 기록하면서 치유와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예술은 침묵하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하고 기록하면서 치유와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사회 변화를 가능케 하는 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의 언어로 서로 다른 맥락에서 실천되어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넘어서 실행과 연대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넘어서 실행과 연대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제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문화연대를 위한 실천적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IFACCA는 앞으로도 청년 예술인의 국제 협업, 문화 다양성 보호, 기술 불균형 해소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해서 공공과 시민, 지역과 세계를 잇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총회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도 예술의 힘과 대화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세션에서 빛나는 통찰과 실천을 나눠주신 연사와 참가자 여러분, 이 총회를 준비해주신 크리스틴 다니엘슨 이사장님,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IFACCA와 예술위 실무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예술은 시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세계를 더 정의롭고 평등한 곳으로 이끄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변화의 흐름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연대의 끈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서문: IFACCA



막달레나 모레노 우하키 IFACCA 사무총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는 2025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ARKO)와 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이하, IFACCA)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총회는 「문화예술의 미래 구상 (Charting the future of arts and culture)」이라는 대주제 하에 전세계적인 위기, 갈등, 그리고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여러 변화 와중에서의 활동을 주지하는 자리였다. 94개국에서 모인 예술가, 문화 실무자, 리더 및 문화예술 생태계 안팎의 정책결정자 등 총 406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문화의 의미와 그 가치의 뜻을 되새기며 현재와 미래의 기술적 상황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미래 구상을 위한 교류와 토론, 성찰을 진행했다.

총회의 주목적은 참가자로 하여금 국제적인 차원의 대화와 교류에 참여하고 각자의 지역적·국가적·권역적 맥락에 대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동 의제를 모색하기 위한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다. 공동주최기관인 ARKO와 한국 참가자들은, 전세계 참가자들에게 대한민국과 세계 각지의 문화창의부문 및 주요 현안들에 관한 통찰을 제공했다. 설립 이래 반세기에 걸쳐 ARKO는 정치적 민주화가 창조적 활동과 예술 표현의 자유 및 디지털 혁신을 촉진했다는 사실을 실천적으로 주지해 왔으며, 한국 정부는 예술가와 문화 실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문화 부문에서의 '한류(K-Wave)'는 오늘날 대중음악, 텔레비전, 영화, 패션 등을 통해 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한편, 한국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계적 차원에서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본 총회는 사회적 긴장, 정치적 격변, 기술적 변화에서부터 국경을 넘어선 집단적 행동의 문제와 문화예술 및 관련 정책과 투자의 미래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주제들을 프로그램에 반영했다.

총회 기간 동안의 논의는 지식 체계와 주체성, 참여 체계와 유대감, 디지털 체계와 기술을 포함한 횡단적 프로그램 클러스터의 망을 따라 진행되었다. 1일 차에는 현황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문화예술 분야의 급속한 변화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도출했다. 참가자들은 새로이 부상했거나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어 온 각종 갈등 요소를 탐색하고 각자의 성취를 공유했으며, 최근에 나타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 변화 양상에 대해 논의하며 미래 구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일 차에는 기존 아이디어들을 더욱 발전시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실천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마지막 날인 3일차에는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미래 지향적인 변화의 실질적 실천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총 36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총회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유의미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이 참석하는 대극장에서의 대담(in-conversation)과 통합(plenary)세션은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artsummit.org). 또한,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안전한 대화와 동료 간 교류를 촉진하는 공간으로 디자인한 롱테이블(long table), 워크숍, 패널, 원형대화(dialogue circle), 오픈세션 등의 소규모 병행 세션을 진행했다. 다양하게 펼쳐진 논의들을 한데 엮기 위해, 코스타리카의 전 문화청소년부 장관이자 문화정책 및 개발 전문가인

실비 뒤랑 살바띠에라(Sylvie Durán Salvatierra)와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Creative Scotland)의 전략기획 디렉터인 알라스터 에번스(Alastair Evans)가 자신들의 견해와 성찰, 그리고 전일의 주요 현안을 정리하는 돌아보기(daily round ups) 발표로 하루의 포문을 열었다.

논의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핵심 문제로 등장한 안건으로는 문화의 정의와 가치 설정, 그 전달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기존 접근법과 그 역사적 영향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대표단은 오늘날 널리 쓰이는 개념과 서사를 미래 지향적 진행 과정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지적하는 한편, 복합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여러 접근법들을 강조했다. 그 예시로는 문화를 근본적으로 사회적 산물로 간주하고 그 비경제적이며 비도구적 가치를 인정하는 접근법; 문화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결속력, 신뢰, 웰빙 및 상호 이익 창출에 활용 가능한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접근법; 문화를 문화창의산업(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CCI)으로 간주하여 경제적 가치 중심으로 평가하는 접근법; 문화의 의미를 문화창의부문(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CCS) 중심으로 평가하여 사회적 가치를 담은 문화적·예술적 표현을 창출하는 동시에 도구적 또는 경제적 가치 또한 지닐 수 있다고 보는 접근법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문화의 주요 가치가 사회적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한편, 정책과 투자 영역에 종사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실상 다양한 문화예술적 표현들의 의존도가 높은 문화창의부문(CCS)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문화를 사회적 접근 방식으로만 특정하여 논의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화의 여러 차원은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관심사 중 어느 한쪽에 치우쳐 보이거나, 때로는 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다양한 사안에 걸쳐 깊이 얽히고 포함된 경우가 많다. 나아가, 이러한 복합성은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책, 입법 및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문화의 이러한 여러 차원은 다양한 사안에 걸쳐 긴밀하게 서로 얽혀 있으며,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책, 입법 및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논의를 통해,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인간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화, 그리고 문화적 권리, 양쪽을 모두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확인했다. 문화의 생태계는 사회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을 모두 아우르며 역동적으로 진화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유산, 역사, 서사 등) 문화를 단수적으로 정의하는 획일적 개념보다는 (다양한 문화, 역사, 삶의 방식 등) 복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념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가치와 서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을 반영하는 한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문화적 권리를 논하는 과정에서 개발, 안보, 이주 문제 및 원주민과 소수자들의 우선 현안 등과 같은 기존의 주요 안건들에 대한 논의와 긴밀한 연결성을 유지해야 한다.

기술은 이번 총회의 주요 테마였으며, 특히 인공지능(AI)은 문화창의부문(CCS) 종사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토론문(Discussion Paper)에서, 한국의 이준 박사는 자연과 인간, 기술 사이의 상호작용이 전통 한국사상 및 조화와 비이원성(non-duality)을 강조하는 동아시아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들의 공진화가 하이브리드 지식을 생성한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기술에 대해 각자 지닌 낙관적 또는 회의적 (내지는 중도적) 입장과 무관하게, 기술이 전 세계 문화창의부문의 지형을 재편하고 있는 만큼 보다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며 또한 문화가 기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대다수

참가자는 인공지능이 혁신과 위험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논의를 통해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것이 결코 아니며 우리는 기술과의 관계와 이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입장, 그리고 대외적 서사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이다. 즉, 기술 발전은 우리의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연발생적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에, 디지털의 영역은 근본적으로 문화적이라는 것이다.

아래의 보고서 내용에서 보듯, 일부 문제들의 경우 세계 공통의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번 총회는 여러 관점을 제시하고 또 반박하거나 대안을 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연대감을 키워갈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러한 측면은 뉴질랜드예술위원회(Creative New Zealand)의 테 카우파파 오토이 아오테아로아 수석 매니저 하니코 테 쿠라파(Haniko Te Kurapa)가 제안한, 이중 선체로 구성된 원양 항해용 카누인 '와카 호우루아(waka hourua)'의 비유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어져 있는 두 선체는 대립적 위치에 있기에 일견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분리불가한 몸체로서 한 바다 위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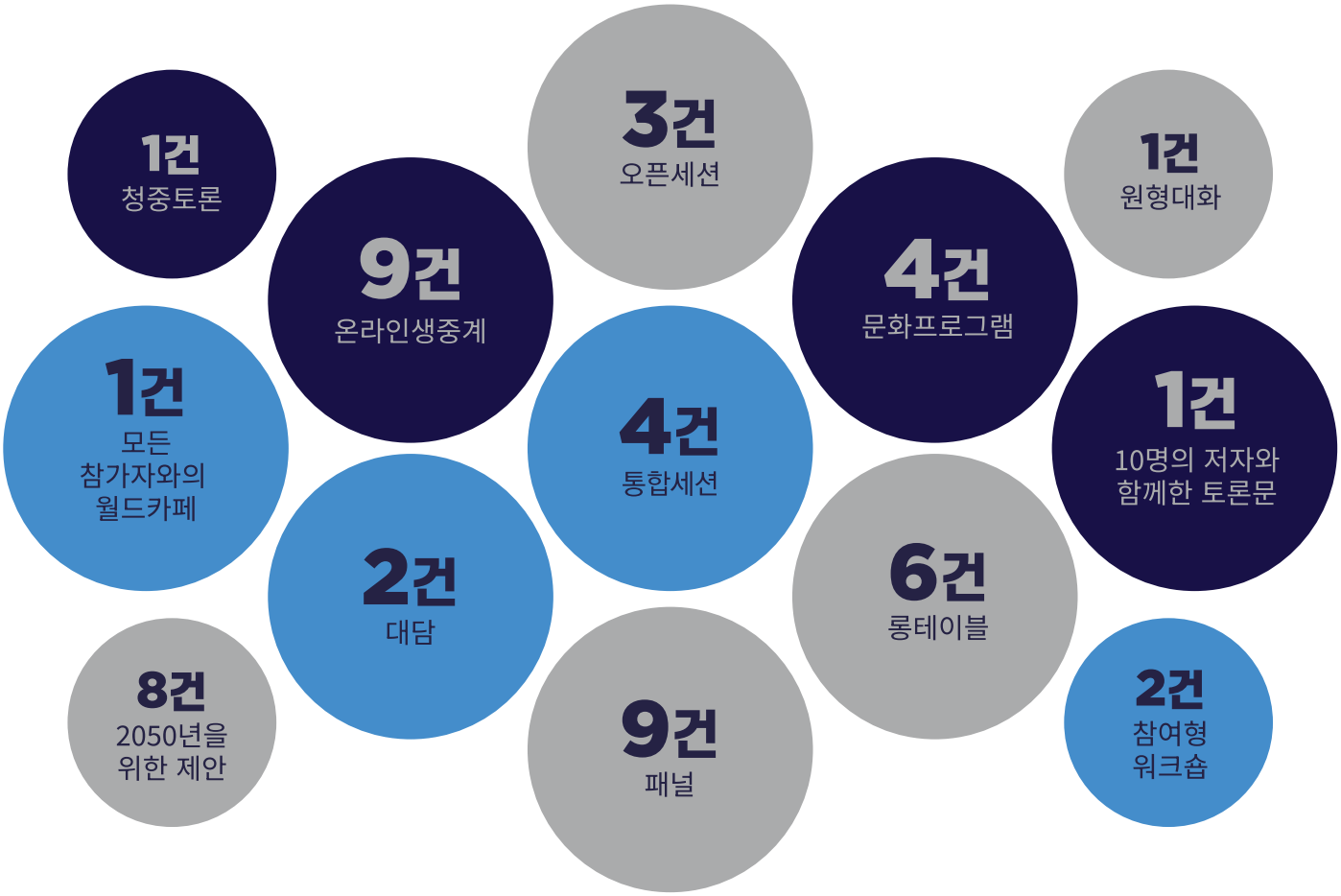
문화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 생태계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국제적 협력과 대화의 장은 문화와 함께하는 정의롭고도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특정 정부나 기관, 공동체가 단독으로 달성할 수 없는 공동의 책임이기에, 이번 총회는 문화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확보하고자 문화생태계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전은 우리가 문화적 권리와 다양성, 접근성 및 참여를 증진하고, 원주민과 그들의 지식 체계, 언어, 문화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며 이를 위한 역량 강화 노력을 더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적 맥락에서, 이번 총회는 올해 9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인 유네스코(UNESCO)의 문화정책과 지속가능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 몬디아컬트(MONDIACULT 2025)에 앞서 개최된 행사였기에 일종의 주요 이정표로서 기능했다. 현재 유엔(UN)은 2030 아젠다의 마무리를 앞두고 미래 글로벌 거버넌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2025 몬디아컬트는는 전 세계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이 각자의 우선과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아젠다 내에서 독립적인 문화목표 설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공동주최 기관으로써 이번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의 논의들이 전 세계 문화창의부문 종사자들의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기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유용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
IFACCA 사무총장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 한 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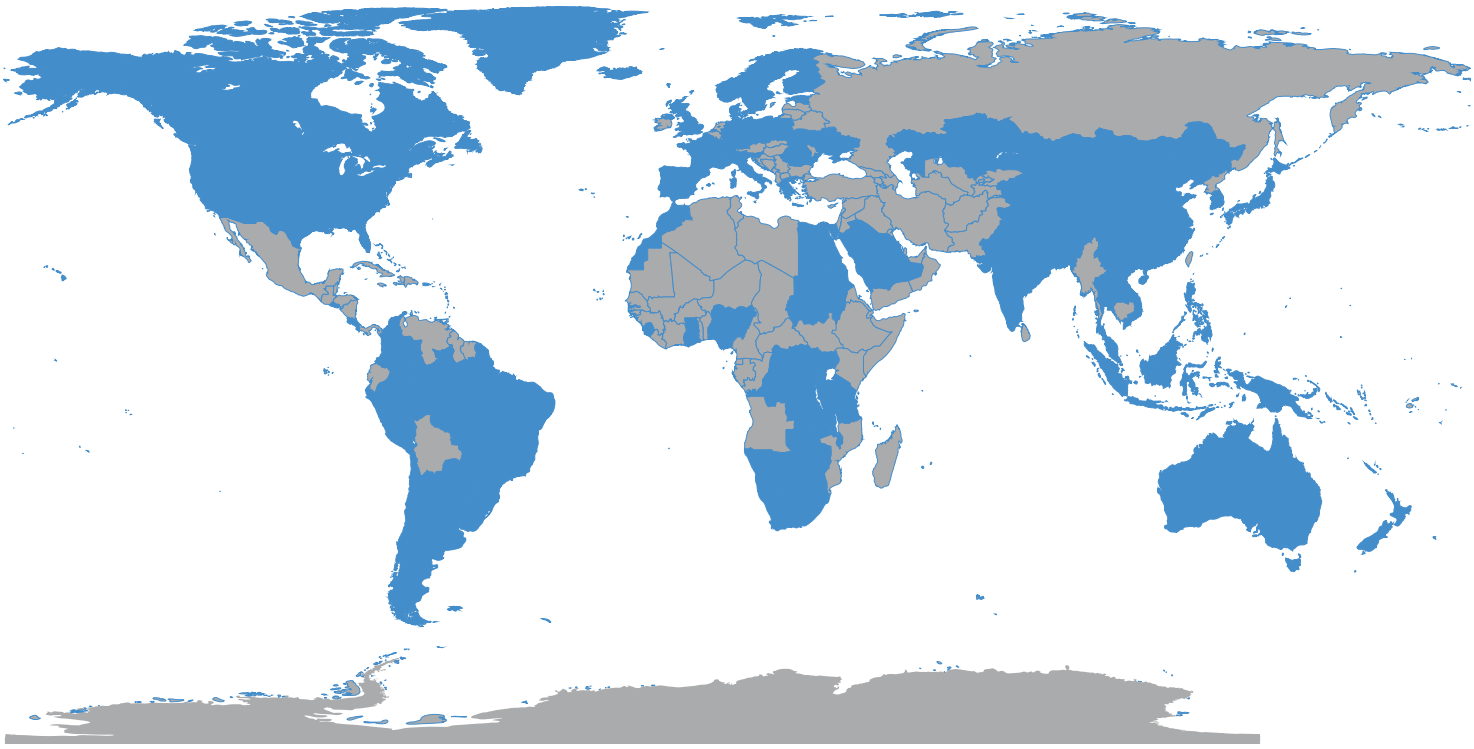
문화예술세계총회(World Summit on Arts and Culture)는 IFACCA가 회원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전세계를 순회하며 2-3년 주기로 열립니다. 정부, 문화 및 비 문화 분야, 시민사회 대표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IFACCA 회원은 물론 국제 사회 전체에 열려 있습니다. 주최기관은 총회 기간에 걸쳐 글로벌 리더십 간 대화공간을 제공하고, 다원성, 호기심, 개방성을 바탕으로 주요 이슈를 탐색합니다.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주최하였으며, 90여개국의 400명 이상의 문화, 예술 및 관련분야의 주요 정책가, 연구자, 관리자 및 실무자가 함께했습니다.

참가자 현황

94개국
총 참가국가

국가별 참가 현황 *



Powered by Bing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GeoNames, Microsoft, Navinfo, Open Places, OpenStreetMap, Overture Maps Fundation, Tom Tom, Zenr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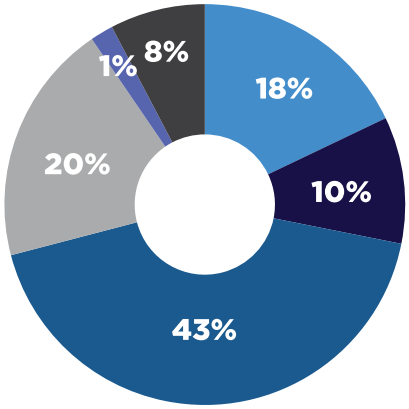
참가국가 목록 : 가나, 그리스,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레바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로코, 몰디브,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바누아투, 바하마, 베트남, 벨기에, 보츠와나, 부룬디, 브라질,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수단,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에스와티니, 에스토니아, 엘살바도르, 영국(잉글랜드,북아일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 예멘, 오스트리아, 우간다,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잠비아, 중국, 짐바브웨, 체코, 칠레, 카메룬,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 쿠웨이트, 쿡제도, 크로아티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파라과이,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레스타인,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호주

* 참가국가는 등록신청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복수의 국가를 기재한 경우 국가수와 국가현황에 모두 표기됨.
참가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참가자를 의미함.

참가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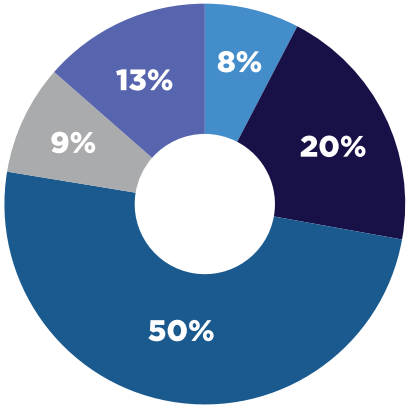
406명
총 참가자 수

권역별 참가자 현황



- 아프리카 (18%)
- 북미/중남미 (10%)
- 아시아 (43%)
- 유럽 (20%)
- 중동 (1%)
- 태평양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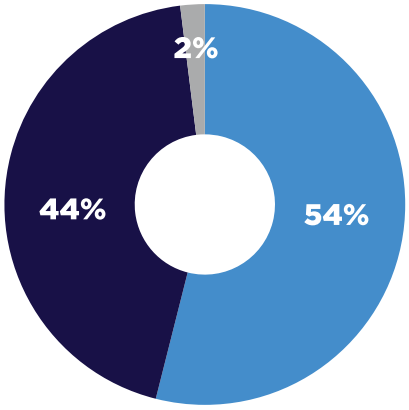
분야별 참가자 현황*



- 학계 (8%)
- 시민사회 (20%)
- 정부 (50%)
- 국제기구 (9%)
- 기타 (13%)

* '정부'에는 국가, 주, 지방 정부 뿐 아니라 국립 기관 및 기관들, 예를 들어 갤러리, 박물관, 도서관 등이 포함됩니다. '시민사회'에는 예술가들이 포함됩니다.

성별 참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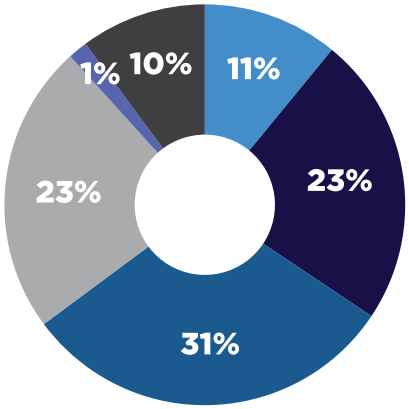
- 여성 (54%)
- 남성 (44%)
- 선택 안 함 (2%)

연사 현황

104명
총 연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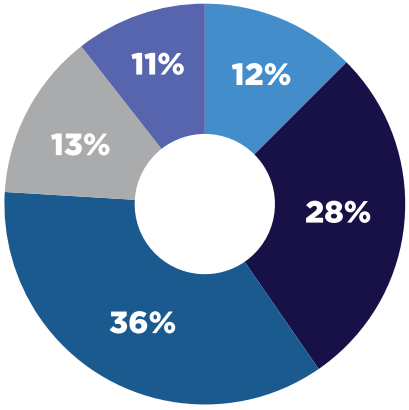
62개국
총 참여 국가

권역별 연사 현황



- 아프리카 (11%)
- 북미/중남미 (23%)
- 아시아 (31%)
- 유럽 (23%)
- 중동 (1%)
- 태평양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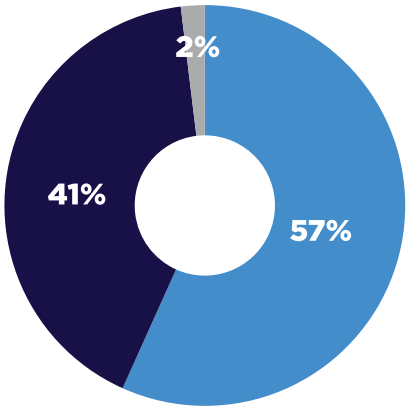
분야별 연사 현황*



- 학계 (12%)
- 시민사회 (28%)
- 정부 (36%)
- 국제기구 (13%)
- 기타 (11%)

* '정부'에는 국가, 주, 지방 정부 뿐 아니라 국립 기관 및 기관들, 예를 들어 갤러리, 박물관, 도서관 등이 포함됩니다. '시민사회'에는 예술가들이 포함됩니다.

성별 연사 비중



- 여성 (57%)
- 남성 (41%)
- 선택 안 함 (2%)

주요 시사점

1. 문화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다

문화의 가치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문화예술 표현들이 의존하는 문화창의부문부터 사회적 가치를 분리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문화의 사회적, 경제적 차원은 다양한 사안에 걸쳐 끈끈히 얽혀 있으며, 정책과 입법 및 투자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복합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야기할 수 있는 부수적 영향을 살피면서 여타 우선순위들과 함께 문화의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 여러 영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2. 문화는 획일적이지 않으며, 그 정의 또한 다양하다

문화는 획일적이지 않으며, 그 정의 또한 다양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들은 광범위한 공동체(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문화에 대한 정의를 독점하는 기관이나 주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정의는 공동체의 주체성과 진화 가능성, 그리고 복수성(문화, 역사, 삶의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 새로운 개념은 문화의 가치를 명확히 표현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나, 이들이 우리 주변 외부 사람들에게 어떤 용도와 함의로 다가오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개념들은 우리가 제시하는 생각과 주장의 수용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 문화적 권리는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문화적 권리는 그 변혁적 효과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하다. 문화적 권리는 문화가 일상적 실천이 되고, 또한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문화의 영역에서, 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자국의 법률에서 문화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수립하는 미래 전략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문화로서, 문화적 권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또한, 부차적으로는 문화와 문화적 권리를 개발, 안보, 이주, 원주민과 소수자의 우선 현안과 같은 기존의 중요 안건들과 연결함으로써,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신의 가치와 스스로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최대한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우리는 기술의 미래와 삶 속에서의 역할을 주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기술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결과이며,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현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인공지능(AI)은 혁신과 위험을 동시에 수반하는 양날의 칼로서, 막대한 환경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기존의 사회문제를 재생산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고의 전환을 통해 세계, 삶, 그리고 사회에서 기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문화창의부문(CCS)이 단순히 기술적 도구를 잘 활용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뚜렷한 윤리적·거버넌스적 고려사항이 따르는 AI 기술의 제반 사항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교육과 훈련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편리함의 함정에 빠지는 대신 그 윤리적 함의를 능동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을 단순히 관찰하는 대신 문화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 기술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5. 원주민의 지식과 언어는 공동의 문화적 의식을 지탱한다

원주민의 지식과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의 본질이며 선조의 지혜를 보존하고 공동의 문화적 의식을 지탱하는 기반이다. 따라서, 지식과 언어의 상실은







왼쪽 위부터: 개막만찬의 크리스틴 다니엘슨 IFACCA 이사장 , 월드카페, 병행12_롱테이블:세계적 연결: 초국가적 문화교류와 이동성 재고, 월드카페에서 하니코 테 쿠라파와 김해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곧 정체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살아있는 문화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을 실현하고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대규모의 투자와 법제화, 그리고 정부 차원의 총체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전통 지식은 2030년 이후 아젠다에 문화의 핵심 차원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미래 정책은 2007년 유엔 원주민 권리선언을 비롯한 기존 국제 협약들과 일치해야 한다.

6.문화창의부문(CCS)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예술가와 문화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국제법은 예술가와 문화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문화 및 공동체에 대한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유용한 기틀과 수단으로 기능하는 한편, 실제로는 그 제정과 시행 방식이 제한적이며 국가 및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투자와 보호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창의부문 노동 인구의 성격과 문제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국가들의 경우 문화창의부문 노동 인구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 현재 논의 중인 보편적 기본소득 혹은 창의기본소득(creative basic income)의 지급은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지만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7. 국제적 협력은 필수적이다

문화창의생태계 전체에 걸친 국제적 협력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예술가, 공동체, 시민사회, 관련 민간 부문, 학계, 정부 및 국제기구는 협력하고 경청하며 서로에게 배워야 한다. 또한 문화가 지니는 지속적인 역할과 가치를 명확히 표현하고, 국가 및 글로벌 거버넌스의 의제에서 문화예술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횡단적 우선과제로서 문화를 자리매김해야 한다.

문화의 다층적 차원과 가치

문화에 대한 접근과 정의, 평가 방식은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문화 부문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나 공동체, 타 분야의 정책결정자, 국가 및 글로벌 거버넌스 의사결정자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때 더욱 그러하다. IFACCA는 총회의 프로그램의 개발 뿐 아니라 여타 업무 전반에 걸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유네스코 2005년 협약 제4조와 일치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바, 협약에서는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이거나 현대적인 문화적 표현과 콘텐트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문화 콘텐트(Cultural content)란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이를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차원 및 문화적 가치를 말합니다. 문화적 표현(Cultural expressions)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되어 문화 콘텐트를 담고 있는 표현들을 말한다.[1]

총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기존의 접근법과 그 역사적 영향에 대해 성찰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개념과 서사를 더욱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논의 과정에서 복합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문화와 그 가치를 규정하는 방식에서 명백한 차별점을 보이는, 다음과 같은 여러 접근법을 찾을 수 있었다:

- 살기 좋은 사회의 필수적 차원: 경제적이거나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 사회적 자본: 문화는 사회적 결속, 신뢰, 웰빙 및 상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를 지닌다.
- 문화창의산업(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주로 경제적 용어를 활용해 문화의 가치를 평가한다.
- 문화창의부문(creative and cultural sector): 비영리 부문, 비공식 부문, 공공 및 상업 부문을 포함하며, 사회적 가치를 지닌 문화적·예술적 표현을 창출하는 동시에 도구적, 변혁적 및 경제적 가치 또한 지닐 수 있다.

논의를 통해, 실제로는 각종 문화예술적 표현의 기반인 문화창의부문과 문화를 사회적 접근으로부터 분리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표면상 사회적 또는 경제적 관심사 중 한쪽이 더 우세한 경우 내지는 심지어 문화와의 직접적인 연결성이 가시적이지 않을 경우도 이와 같은 문화의 여러 차원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안건들에 내재되어 있다. 또한 정책 및 투자 분야의 종사자들은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우선순위들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와 같은 복잡성을 반드시 다루어 주어야 하며, 각각의 접근법이 초래할 수 있는 부수적인 영향 또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자 중앙대학교 교수인 박양우 박사는 문화가 환경 및 공중보건 위기, 정치적 격변, 사회 안정성 및 교육 등 다양한 외적 요인으로부터 심대한 영향과 구속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이 모든 요소를 적절히 갖출 때 비로소 문화와 예술을 육성하고 키워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 세계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방식

총회 기간 중 호주의 문화경제학 교수인 저스틴 오코너(Justin O'Connor) 박사는 문화란 세계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1] https://www.artsummit.org/programme-objectives

방식이며, 그 가치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982년의 「멕시코시티 문화정책 선언」과 2005년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에 드러난 포괄적인 역사적 정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최초의 몬디아컬트(MONDIACULT) 회의를 마무리하며 멕시코시티에서 발표한 「멕시코시티 문화정책 선언」은 문화와 발전 사이의 초기적 연결을 강조하며,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가장 폭넓은 의미에서의 문화란, "한 사회 또는 사회집단을 특징짓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의 복합체 전체"이다. 이는 예술과 문학뿐 아니라 생활양식, 기본적 인권,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을 포함한다(41).

이후 개최된 유네스코 제33차 총회가 그 마무리 단계에서 채택한 2005년 협약은 '문화와 발전 사이의 연결'을 재확인하고,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정했으며, 문화적 표현을 구현하거나 전달하는 문화 활동, 재화 및 서비스가 '그 상업적 가치와 무관하게' 지니는 이중적 지위를 설명했다. 또한 문화 활동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문화적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4-6).

오코너(O'Connor)는 역사적 맥락과 긍정적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포괄적 정의는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제, 정치, 도시 계획, 소비주의처럼 '삶의 총체'에 작용하는 변화 주체들은 문화 정책의 영역을 훨씬 넘어선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문화 정책이 '문화'를 소유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를 이미지, 텍스트, 소리, 움직임, 리듬 등과 같이 상징을 구축하고 의미를 형성하는 구체적 활동의 집합으로 한정해서 바라볼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활동은 인간 존재의 필수 요소이며, 누구에게나 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는 '문화는 사회 생활의 별도이자 구별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협약은 문화 부문을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 문화 노동자, 예술가, 그 밖의 창의적 전문가뿐 아니라 영리 목적의 상업적 기업, 예술·문화 분야의 비영리 단체, 박물관과 미술관, 문화유산지, 도서관 등의 공공 문화기관, 예술 분야의 교육·훈련 기관, 예술과 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 그리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활동의 영역

살 만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게 해 주는 인류학적 의미에서의 광의의 문화와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협의의 문화 사이에는 깊고도 복잡한 연관성이 존재하나, 문화정책은 그 어떤 문화적 목표 하에서든 무엇보다도 문화적 표현과 그 바탕이 되는 문화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문화 부문 없이는, 우리가 함께 영위하는 문화생활은 겨우 명맥만 이어나가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는 기반시설, 보건, 교육, 사회서비스와 더불어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웰빙 프레임워크(well-being framework)의 핵심 요소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웰빙의 성과와 인구 집단에의 그 분포 양상,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자원을 측정하며, 그러기 위해 정책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접근을 요구한다. OECD는 사회적 자본을 서로 다른 집단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규범, 공유된 가치, 제도적 합의'로 정의하고 있으며(2024, p.25), 이는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긍정적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p.6), 사회적 연결성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주요 지표에 포함하고 있다(p.15). 이와 관련하여, 노르웨이 문화예술위원회(Arts and Culture Norway)의 위원장이자 IFACCA 이사장인 크리스틴 다니엘슨(Kristin Danielsen)은 문화를 사회적 자본으로 개념화할 때의 이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문화는 상품이 아니라 인간적·사회적 가치를 대표한다. 문화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관계 맺으며, 미래를 상상하는지를 의미하며, 인간성의 핵심 요소이다. 문화는 우리를 독립적 주체로 키워낼 뿐 아니라, 의미와 목적을 공유한 공동체를 생성해 낸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많은 이들과 공동체,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OECD의 정의는 각국 정부 및 유엔 국민계정 부문에서도 차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이 개념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통된 이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러 학문 분야가 사회적 자본의 정의를 각자 달리 내리고 있으며, 그 근원과 기능에 대해서도 상이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는 문화를 사회적 자본으로 보는 관점의 수용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es Fukuyama)는 1999년에 국제통화기금(IMF)을 위해 작성한 논문에서 사회적 자본을 '현대 사회의 문화적 구성요소'로 규정하며, 여러 저자들이 이 개념을 각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했다. 후쿠야마는, 어떤 이들은 사회적 자본이 사적 재화(private goods)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public goods)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자의 형태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은 기존 문화정책 논의와의 연결점을 시사하며, 특히 '문화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하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로 인정한 2022년의 「몬디아컬트 선언(MONDIACULT Declaration)」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광범위한 의제에서 문화의 가치를 이러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문화를 공공재로 규정하는 프레이밍(framing)은 결코 단순하지도, 일관적으로 수용되는 개념도 아니라는 사실 또한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공공재 개념의 기원과 문화와의 연관성, 그리고 개념의 다양한 해석에서 비롯하는 복잡성을 고찰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기회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IFACCA의 2024년 보고서 『공공재로서의 문화: 정책 논의에서의 역할 탐색(Culture as a Public Good: Navigating its role in policy debates)』으로 이어진다.

문화창의산업(CCI) vs 문화창의부문(CCS)

문화창의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CI)과 문화창의부문(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CCS)의 개념은 일견 서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에 자주 혼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는 그 둘 사이에 분명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전자(CCI)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중점을 둠으로써 사회적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후자(CCS)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적 성과를 이룩할 잠재력이 있는 비영리 부문 및 공공 부문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생태계를 포괄한다. 이러한 차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문화창의산업(CCI)의 가치를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위한 접근방식을 통해 문화와 창의업업성이 의존하는 생태계 전반을 더 잘 이해하고 고려하기 위함이다.

시에라리온과 우간다 출신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문화정책 자문가이자 작가인 야리 카마라(Yarri Kamara)는, 문화를 전적으로 문화창의산업(CCI)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때의 이점과 잠재적 함정을 함께 고찰했다. 특히, 카마라는 최근 아프리카의 문화정책 담론이 경제적 가치, 특히 일자리 창출과 수익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CCI 접근법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아프리카 특유의 인구 구조 변화와의 연관선상에서 살펴보았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이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반면, 아프리카는 급증하는 청년 인구로 인해 고용 기회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마라는 작가의 입장에서 이 접근법이 가진 장점 또한 인정하면서, 일례로 창의 산업 개발을 위한 정책과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아프리카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출판하는 지역 출판사들이 늘어났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카마라는 일자리와 소득에 관한 근거 자료를 활용해 정부를 상대로 경제적 논리를 제시하는 접근법이 최근 해당 지역에 부재했던 문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그럼으로써 더욱 폭넓은 논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산업의 상업적·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비상업적, 사회적 가치까지 인정해야 할 필요성은 음악 부문을 다룬 세션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참가자들은 음악 산업 및 유관 산업의 복잡한 구조가 종종 외부의 이해 부족에 직면한다는 점을 논의했다.

그러나, 카마라는 산업적 접근법에만 집중할 경우 문화의 사회적 차원이 쉽게 묻힐 수 있으며, 문화가 상품화·민영화될 경우 구매력 없는 시민의 문화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동의 문화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무료 공공공간이 적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했다.

우리는 식민지 시대 이전의, 비시장기반(non-market-based) 문화적 실천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소외된 청년들이 건전한 표현의 장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은 앞으로도 존재할 것인가? 문화의 사회적 차원에 주목했던 정부들이 순수하게 경제적 목표만을 추구하느라 사회적 우선순위를 포기하는 유혹에 빠지지는 않을까? 결국, 카마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창의부문(CCS)의 관점으로 문화에 접근하면 상기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의 비상업적 측면과 비영리 공간이 무엇이며,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우리는 이미 뜻을 같이하는 이들에게만 호소하는 단계를 넘어설 언어와 증거, 사례를 찾아야 한다… 이미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우리 스스로를 설득하기는 매우 쉽다. 그러나, 우리는 무관심한 이들, 회의적인 이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게 해 주는 언어를 찾아야 한다.

위와 같은 구별은 일견 단순한 차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책과 투자의 틀을 형성할 뿐 아니라 문화의 가치에 대한 더 폭넓은 공동체의 인식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문화를 설득하는 방식

문화를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개념은 분명 영향력을 지닌다. 그러므로, 서사를 구성하고 청중을 고려할 때 의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제시하는 서사를 뒷받침하고 주장하는 가치를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 또한 진중히 고려해야 한다.

참가자들은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위트워터스란드대학교(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의 문화기업 및 정책 유네스코 석좌교수인 에이브릴 조프(Avril Joffe)와 콜롬비아의 정치학자 다이애나 레이(Diana Rey)가 진행한 대화형 워크숍에서 우리가 문화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을 넘어 보다 확장된 사고와 서사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공공기관과 시민사회 단체가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효과적인 공공정책을 수립하며,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형성하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여 문화 분야의 우선순위를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의 범위를 탐색했다. 또한, 2025년 유엔 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가 채택한 최신 국민계정체계(National System of Accounts)에 대해서도 논의함으로써 웰빙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기반을 확장했다. 특히 건강, 웰빙 및 사회적 자본과 같은 문화의 사회적 차원을 통합하여 이를 국내외 통계 시스템에서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개발 가능성 또한 함께 모색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문화창의부문 내에서 기존의 통계 자원과 도구에 대해 더 많이 인지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25년 9월 발표 예정인 유네스코의 「2009 문화지표체계(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개정안은 '문화창의생태계(cultural and creative ecosystem)'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보다 포용적으로 재구성했기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기존의 「유네스코 문화|2030 지표」에 대한 인지도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이는 문화창의부문(CCS)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련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부문 내의 지식과 역량을 더욱 확대할 기회가 있음을 시사한다.







왼쪽 위부터: 통합 5_패널: 미래의 지평: 문화예술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로드맵에서 조 쿠카타스, 통합 1_패널: 급변하는 시대, 문화의 미래 전망, 병행 11_패널: 창의적 교차점:음악 산업이 제공하는 창조경제 전반에 걸친 교훈에서 심희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래 설계를 위한 토대

문화적 권리

문화의 영역과 관련된 인권인 문화적 권리는 문화의 사회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화권 프레임워크는 문화를 고정적으로 정의하지 않지만,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 따라,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며, 과학적 진보 및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생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문화권 분야를 담당하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직을 신설했다. 그 이후, 특별보고관들은 문화적 권리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 명료화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간의 창의성을 모든 종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견지에서 보호하고, 이를 행사·발전·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보호할 권리
- 정체성을 자유롭게 선택·표현·발전시킬 권리
- 개인과 집단이 스스로 선택한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자신의 문화적 관습을 실천할 권리
- 집단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
- 예술, 과학적 지식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 자신과 타인의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문화유산의 해석·정교화·발전에 참여하고, 문화적 정체성의 재구성에 참여할 권리

(유엔 인권이사회, 2019, p.4).

본 총회에 참석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알렉산드라 잔타키(Alexandra Xanthaki) 박사는 다양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저항해야 하며, 문화에 대한 모든 정의가 진화 가능성과 복수성을 인정해야 하고, 문화와 문화적 권리를 모두 보호하며, 문화에 있어 인권기반 접근법(human rights-based approach)에 대한 다짐을 갱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잔타키 박사는 나아가,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하고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오늘날의 세계가 다양성을 바라보는 방식이 매우 시급히 다루어야 할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구 세계에서는 최근 들어 엘리트 계층이 다양성을 지양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듯하지만 이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세계 각지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무시한 사례가 많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문화 부문에서 함께 단결하여, 다양성 그 자체와 남들과 다른 이들, 그리고 자신의 삶과 예술, 비전과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추구하는 이들에 대한 어떠한 억압이나 괴롭힘에도 확고히 맞서야 한다.

잔타키(Xanthaki) 박사는 문화 생태계가 사회적·경제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며 역동적으로 진화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를 단선적(유산, 역사, 서사 등)으로

정의하는 획일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복수성(문화, 역사,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래 전략을 논하는 과정에서 정체성과 인간성을 표현하는 문화 그 자체는 물론 문화적 권리 또한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하고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며, …문화적 권리는 그 변혁적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잔타키 박사는 이와 같은 문화적 접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건 맞지만 개발, 안보, 이주 문제 및 원주민과 소수자의 우선 현안 등 주요 기존 안건과 문화 및 문화적 권리를 연계하는 데에도 부차적인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가치와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고자 하는 방식에 부합하도록 하며 최대한 많은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육, 보건, 환경과 같은 여타 사회적 공공재와 연관된 분야를 포함하여, 여러 정책 영역을 통합하는 유연하고 집단적인 문화 정책, 그리고 투자를 의무화하고 분권화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은 이러한 권리 기반 접근법의 실현을 지원하고 정치적 격변과 불안정 속에서도 미래의 성과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브라질 문화부의 문화시민권 및 다양성 담당 국장인 마르시아 헬레나 곤살베스 홀렌베르그(Márcia Helena Gonçalves Rollemberg)는 문화적 권리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다양한 사회적 공동체들과 여러 정부 단위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적인 문화다양성 및 시민권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이러한 정책은 '문화적 권리가 인권의 영역을 더욱 풍부하게 하며, 우리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세계를 살아가고 행동하며 인식하는 방식'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문화권 문제는 총회 1일차에 진행된 월드카페(World Café) 세션의 참가자들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특히 향후 문화예술 분야의 미래를 개선하거나 저하시킬 수 있는 잠재적 행동 방안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형평성, 정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주제로 진행한 그룹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자국 법률에서 문화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고, 문화적 권리의 의미를 둘러싼 여러 긴장과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문화 및 문화적 권리가 보편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특히 인권 프레임워크가 서구적 산물이라는 논의의 맥락에서 이 점을 더욱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문화적 권리를 진전시킬 수 있는 역량은 결국 교육과 정보 접근권을 포함한 다른 기본적인 권리들을 함께 보장해야만 제대로 배양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권과 일상적 실천으로서의 문화는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구성하고 가치를 평가하는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번 총회의 마지막 통합세션에서, 스페인 문화부의 문화권리국장인 하스민 알레한드라 베이라크 울라노스키(Jazmín Alejandra Beirak Ulanosky) 박사는 사회와 문화를 별개로 간주하는 경향으로 인해 대다수 시민과 문화창의부문 종사자들 간에 인식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가 직면한 문제 중 대다수가 바로 이러한 문화창의부문 내부의 가치와 권력 집중으로부터 비롯한다는 것이다. 울라노스키 박사는 문화가 시민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며, 문화적 권리와 일상적 실천으로서의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에 대한 정의와 정책의 수립, 실행과 관련된 권력을 재분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권력 없이는 실질적 주체성(agency)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살아있는 문화, 언어, 그리고 지식

살아있는 문화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을 실현하고 지속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와 법제화, 그리고 정부 전반의 총체적 접근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총회 참가자들은 다양한 지역의 관점을 공유하며,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차원에서 그 법제화와 실현이 부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아가, 몇몇 사례에서는 기존에 실현되었던 역사적 성취들이 최근에 다시 후퇴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경계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브라질의 긍정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홀렌베르그(Rollemberg)는 브라질의 문화다양성 및 시민권 정책이 공동체와의 공공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살아있는 문화 국가 정책(National Policy of Living Culture)'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고, 문화

향유의 민주화를 이루며, 문화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브라질 전역에서 문화와 창의성을 사회적·경제적 변혁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의 기본 원칙은 '국가의 일은 문화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집단과 공동체 및 시민사회 기관들의 문화적 활동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기반이 되는 장소를 '문화 거점(points of culture)'이라 부르며, 현재 브라질 내에서 그 수는 7,200여 곳에 이른다.

또 다른 세션의 참가자들은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정치적 헌신을 촉구하며, 살아있는 문화적 지식과 유산의 보유자인 예술가, 실무자 및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멜라네시아 선봉 그룹(Melanesian Spearhead Group)의 수석 행정고문인 크리스토퍼 와이워리(Christopher Waiwori)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우리는 공동체와 지역의 재능 있는 사람들, 예술가들이 살아있는 문화의 보유자이자 실천자로서, 우리의 살아있는 문화와 다양한 유산을 보호하고, 지키며, 수호하고, 포용하고, 축하하기 위해 손을 맞잡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원주민들이 주도한 원형대화(dialogue circle)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2007년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을 바탕으로 미래의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주권과 자기결정권 문제를 논의하며, 지식을 어떻게 보존하고 누구와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원주민 공동체에 돌려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 공공기관이 원주민 공동체를 감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체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화와 관련된 법안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문화적 가치와 육지, 바다, 산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세계 간의 연결성을 교육에 포함하는 몰입형 학교(total immersion schools)와 같은 교육 문제도 다루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 공동체가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교육과정에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포함시키고, 나아가 폭넓은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와 훈련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총회의 마지막 통합세션에서, 쿡제도 문화개발부 장관급 차관인 에밀 카이루아(Emile Kairua)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문화적 미래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원주민 언어의 쇠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민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의 영혼이며, 선조의 지혜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공동의 문화적 의식을 지탱하는 닻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상실은 곧 정체성의 상실과 다름없다. 카이루아는 또한, 기후변화와 전 세계적 이주 문제를 거론하며, 해수면으로부터의 고도가 최대 2~3미터 이상을 넘지 않는 모래섬과 환초가 주를 이루고 있는 쿡제도의 경험을 전했다. 국민들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며 가족과 공동체 전체가 이주할 수 있는 장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이루아는 이러한 상황을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이유가 다르고 그만큼 위기의 정도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이 같은 대규모 이주에는 분명 역사적 선례가 존재한다. 수백 년도 더 전에 이미 수많은 카누들이 응아탕기이아(Ngatangiia)의 해안을 출발해 뉴질랜드와 같은 장소로 우리 민족을 실어나르면서 이주와 개선을 위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는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매우 유연하며, 견고하며, 적응할 수 있는 민족이다.

최종적으로 참가자들은 다양한 관점, 법률, 규범 및 문화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바로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도 지속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갈등과 위기의 시대 속 문화

참가자들은 총회 전반에 걸쳐 지정학적 상황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했다. 모든 갈등이나 전쟁은 고유한 맥락에서 발생하며, 각기 다른 문화적·역사적·사회적 역동성을

지닌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레바논, 미얀마, 북아일랜드,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일어난 갈등 사례를 논의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은 결코 고립적이지 않으며 다른 국가 및 사회와 점점 더 깊은 연결 선상에 놓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신뢰와 배려의 문화를 촉진하고, 능동적이며 평등한 참여를 우선하며, 동정(sympathy)과 공감(empathy)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할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갈등 상황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공격이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서관, 박물관, 문화유산 센터와 같은 문화기관들이 공동체에 지원과 치유, 그리고 대화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나아가, 참가자들은 국가적·국제적 행위자들이 예술가와 문화 실무자들이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트라우마를 인식하며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윤리적 접근을 보장하여 예술적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의 문화 전문가이자 학자인 다리나 지보흘랴도바(Daryna Zhyvohliadova)는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전쟁의 시기, 문화는 공감과 연대의 공간이 된다. 우리는 함께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문화는 직접적인 갈등이나 회복의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평화를 이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참가자들은 정책결정자와 시민사회 등 문화창의부문(CCS)의 모든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평화구축을 위한 초점을 확대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의적 표현의 자유를 통해 의미 있는 문화적 대화를 가꾸어 나가고,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국제적 결속과 문화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어의 중요성과 평화 구축 수단으로서의 문화의 힘은 무장 갈등 상황뿐 아니라 국가 내외의 비무장 사회 갈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공통의 기반을 찾는 데 대한 논의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세계적으로 공적 담론에서의 거론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양극화'나 '통합' 같은 개념이 실제로 얼마나 유용한지 의문을 제기했고, 특히 '무엇을 위한 통합(unity with)'과 '무엇에 대항하는 통합(unity against)'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빈번한 갈등 상황에의 지속적 노출이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여 공통 범위(commonality)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며, 모든 의견 충돌을 개방적 토론이 아닌 양극화로 규정하는 경향에 대해 경고했다. 양극화로 일괄 규정할 경우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며, 건전한 민주적 정치 담론을 잘못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담론과 검열 문제는 주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국가들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글로벌 노스(북반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점점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다양성과 예술적·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함이란 때로 불편함을 견뎌내고 이견의 존재 가능성을 이해한다는 뜻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의 반응을 판단하고 조절할 수 있는 주체성을 지니며, 예술의 역할 중 일부는 바로 도발과 도전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지닌 사람들을 연결하고 소통을 장려하며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과 공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공간에서는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불편함을 안전하게 느끼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통의 기반 모색에 관한 병행 세션에서는 언론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품들을 특별히 선정하여 제시한 전시에서, 이들이 왜 논쟁적 작품으로 여겨지는지에 대해 발표자들이 건설적인 교환과 성찰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구성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이처럼, 교류와 연결을 위한 물리적 공간의 필요성은 분열과 에코 챔버(echo chamber)넘어선 대화 촉진을 한 월드카페(World Café) 세션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참가자들은 물리적인 대화가 보다 섬세한 감정적 교류를 가능케 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이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세대 간의 소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가 제기하는 실존적 위협은 예술과 문화, 그리고 기후 행동과 서로 교차한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기후변화가 명확한 환경적·경제적 문제이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문화적 위기라는 데 동의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글로벌 공동체로서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는지를 재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에는 환경과 살아있는 문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가자들은 특히 작은 섬나라 개발도상국들의 특징적 취약성을 강조하며, 원주민의 전통적 지식과 무형문화유산, 혁신적인 예술 및 문화적 실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적응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핵심이기에, 예술과 문화, 특히 원주민의 전통 지식과 지역사회 기반 전략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강력한 방편을 고안할 수 있다고 논의했다. 이같은 대응책은 각 지역 특유의 맥락에 맞추어 실질적 이행과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 참가자들은 옹호활동과 시스템의 변혁, 그리고 교육이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서사를 재구성함으로써 지역·국가·국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또 기존의 문화적 가치와 실천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예술과 문화가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와 같은 재정적 수단을 포함한 다부문적인 사회·환경적 프레임워크에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문화적 손실과 피해를 명시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논의했다. 또한, 제도적 절차를 재구성하여 지역사회와 원주민 공동체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학술 및 연구기관이 문화적 지식과 창의적 실천, 그리고 공동체 리더십을 주요 임무로 하는 학제적이고 포용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기후 행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예술가, 문화 실무자, 공동체의 역량을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모두를 위한 참여와 접근

문화적 참여는 문화의 사회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을 두루 포괄한다. 문화적·창의적 실천, 아이디어 교환, 공동체의 관습, 거버넌스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열린 참여, 그리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문화생활에의 참여 증진을 다룬 패널에서, 참가자들은 문화적 참여가 정치적이며 창의적인 실천으로서 서사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구축하며, 문화생활에서의 대표성을 재조정하고, 집단적 주체성을 통해 권력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다시 한번 개념과 언어에 대해 더욱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문화의 거버넌스와 미래에 관한 논의에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요청했다. 예를 들어, 주류 용어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회복력(resilience)'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신 지역의 문화적·언어적 현실에 뿌리를 둔 개념을 활용해 지역 거버넌스를 안내하고, 공동체가 접근하기 쉽고 실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단순한 언어의 사용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생활에 대한 공적 투자가 활발한 국가에서조차 접근과 참여의 기회가 여전히 불평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문화적 대표성의 부재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문화 생태계 구축은 구조적 변화 뿐 아니라 권위와 지식이 어떻게 공유되고 이해되는지를 재구성하고 바꾸기 위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와 문화창의부문(CCS)의 대표성, 자원,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접근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참여, 접근, 포용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한 정책적 프레임워크마저도 정치적 주기나 혼란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거나 재구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참가자들은 참여적 이니셔티브가 대도시 지역 외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더 폭넓은 접근과 포용을 촉진하며, 예술가와 문화 실무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여러 측면 중 하나로만 축소되는 경우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문화기관이 공적 재원에만 의존하기 보다 지속가능한 포용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생활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다.

문화 거버넌스의 탈중앙화를 주제로 한 패널에서는 참여, 형평성, 포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공동체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 과정의 실질적인 사례를 캐나다, 콜롬비아,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를 통해 다루었다. 캐나다에서 2년마다 국제 공연예술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CINARS는 의도적으로 자국 내의 주요 문화 수도 바깥 지역에서 활동함으로써 지리적 분권화를 추구하며, 주요 대도시 밖에 위치한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원주민과 지방 인구를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의 예술적 기여를 부각하며, 이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 중앙은행인 '콜롬비아공화국은행(Bank of the Republic)'에서 운영하는 정교한 분권형 문화 거버넌스 모델의 예가 있는데, 문화적 다양성 보호를 명시한 헌법적 약속과, 원주민 언어가 66가지 이상인 인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공동체가 주도하는 참여적 접근방식을 우선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수 세기에 걸친 정치적·문화적 권력의 중앙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다른 기관들이 전략적으로 지역문화재단에 의사결정 권한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와 공동체 배제로 인한 중앙집권형 문화 시스템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권한을 주(州) 및 시(市) 차원의 구조로 분산시키는 국가적 프레임워크를 도입했고, 국립예술위원회(National Arts Council) 역시 정책과 거버넌스 구조 및 재정 지원 모델을 조정하여 비공식적이며 지역사회 주도의 예술적 실천을 우선시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분권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공통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모든 지역이 분권화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투자와 훈련이 필요할 수 있다.
-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
- 지역에서 우세한 문화가 소수의 목소리를 주변화하거나 배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차원에서의 배제 현상 재생산으로 이어질 위험을 수반한다.
- 분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정이나 우선순위의 변화로 인해 시행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참가자들은 또한 거버넌스와 정책 결정의 효과적인 탈중앙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자원뿐 아니라 권한과 결정권을 지역의 행위자들에게 이전해야 하며, 기관들이 구조와 투자 모델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독특한 문화 형식을 창출하고 지역의 창의 경제를 활성화하며,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참가자들은 한편, '탈중앙화(decentralised)'와 '중심 해체(decentred)'라는 접근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는 중심에서 주변으로의 권력 재분배를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관계를 새롭게 상상하며 지역의 지식을 단순히 보충역으로 다루는 대신 근본적인 토대로 삼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예술위원회(National Arts Council of South Africa)의 위원장 직무대행 줄리 디포파(Julie Diphofa)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분권화는 단지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정의에 관한 것이며,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위계 구조를 해체하고, 예술가와 공동체가 문화 생태계를 스스로 정의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권리, 책임 그리고 보호

예술가와 문화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근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시급하다. 그러한 견지에서, 국제법은 예술가와 문화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으며 자신들의 문화와 공동체에 대한 주체성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바탕과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시행 방식이 제한적일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지식에 대한 서구적 접근 방식이 오히려 보호 대상인 개인과 공동체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지적재산권(IP), 저작권, 노동권, 그리고 사회적·법적 보호(기존 및 잠재적인 사항을 모두 포함)와 같은 문화 관련 권리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나미비아 국립예술위원회 위원장이자 유네스코 국가 전문가로, 저작권 법률 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나미비아 2024 국가예술기금 법안 및 규정 초안 작업의 기술 자문으로 활약한 시슬레 제이콥스(Cislé Jacobs)는 다수의 국가가 보호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네스코 협약을 비준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도 문화창의부문(CCS)의 구체적 특성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제이콥스는 공공기관이 지적재산권, 저작권, 노동 보호와 관련된 기존 법률의 실질적 집행을 촉진해야 하며, 노동자들 간의 조정과 단체교섭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 문화는 권리다. 문화는 노동이다. 문화는 우리의 공동 책임이다. 문화는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부문이자, 발전의 여러 차원이며, 정체성과 공동체, 경제, 그리고 주권을 아우르는 것이다. 우리가 때로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테 헤렝가 와카-웰링턴 빅토리아 대학교 (Te Herenga Waka-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의 법학부 수석 강사인 솔라마레말로 하이앤 투알리마(Solamalemalo Dr Hai-Yuean Tualima)는 25년간의 협상 끝에 2024년 5월에 채택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에 관한 조약」이 원주민 공동체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태평양 국가들의 협상을 주도한 투알리마는 비록 조약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개인적·집단적 권리와 문화 및 창의적 작업에 부여하는 의미를 인정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온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에게는 일종의 정치적인 승리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알리마는 이 조약의 채택이 더 장대한 과정의 시작일 뿐이며, 그 효과는 각국이 얼마나 이를 신속히 비준하고 이행하는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이 조약을 비준한 나라로는 말라위가 유일하다. 또한, 투알리마는 조약을 비준하고 이행하기로 결정한 국가들이 정책과 투자에서 정부 전반에 걸친 접근법을 확실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식재산, 환경, 문화, 외교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들이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투알리마는 정부가 공동체의 '진정한,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역량 강화를 논의할 때에는 누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신식민주의적 성격을 띤 기관들은 때로 정부 기관 자체에 관련 지식과 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동체에 부족함이 있다고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투알리마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예술가들과 지식 보유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와 기대를 명확히 전달하고, 문화정책을 포함한 기타 관련 국가 정책 분야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을 독려했다.

향후 예술가와 문화 노동자들이 적절한 근로 환경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창의부문(CCS) 특유의 불안정 고용, 임금 격차, 사회적 보호 장벽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창의부문(CCS) 노동력의 범위를 정의하는 작업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이 부문의 노동력이 겪는 문제의 범위와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부 투자와 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할 능력을 기를 수 있을지 여부 또한 이 정의에 달려있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누가 예술가 또는 문화 노동자인지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의 장단점을 살펴보았고, 국가 별 정의가 항상 일관적이지는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노동자란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으면 정부가 격차를 파악하고 의료 및 연금 등 사회적 보호와 복지 혜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런 한편으로, 공식화된 정의는 배타적일 수 있으며 검열, 비난, 문화의 정치적·선전적 도구화라는 위험을 수반하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권력 남용의 선례가 있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국가에서 그러한 위험성이 크다.

참가자들은 명확히 정의한 기준과 문화창의부문(CCS) 노동력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특히 문화창의부문의 특성에 맞는 투자와 지원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내 세금

및 사회보장 관련 기관과 협력할 경우 정확한 노동력 데이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화창의부문 종사자들의 수입 패턴과 문화예술 활동 외의 추가적 수입을 통해 형성되는 포트폴리오식 커리어(portfolio careers)는 일부 노동자들이 겪는 실질적 불안정성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개인 정보의 수집과 추적 문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국가의 예술가와 문화 노동자들에게 민감한 문제로 다가오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고용 지위와 계약 문제 또한 논의하면서, 탄탄한 노동 보호 제도를 갖춘 국가에서도 노동법이 일반적으로 정규 고용된 사람들만 보호하고 프리랜서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문화창의부문(CCS) 내에서 흔히 나타나는 '프로젝트 중심 고용(projectariat)'의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는 정식 계약 없이 프로젝트 단위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그 해결을 위해, 부문 내 모든 주체들이 함께 지켜야 할 합의된 기준과 모범 사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노동자가 공식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고용 이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러한 기준 마련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 스웨덴예술위원회(Swedish Arts Council) 위원장 카이사 라빈(Kasja Ravin)은 스칸디나비아의 사례를 소개하며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공공 계약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바로 이 제도가 예술가들의 최소 임금 수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스웨덴 예술위원회는 공공 지원금을 신청하는 독립 기관들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적정한 예술가 임금을 예산에 반영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전문성에 대한 의지를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독일위원회(German Commission for UNESCO)가 2024년에 제정하고 발표한 공정문화헌장(Fair Culture Charter)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헌장은 문화 부문의 공정한 발전을 위한 원칙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근로조건과 공정한 보수, 다양한 문화적 표현과 자원에 대한 접근성, 비차별과 성평등, 지역발전, 시장접근, 디지털 형평성과 윤리, 환경에 대한 존중, 대중과 소비자의 인식 제고 등을 포함한다.

문화창의부문의 공정하고 존엄한 노동 환경 보장,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위한 협력적 경로 구축을 주제로 한 월드카페(World Café)에서는 관련 문제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국가 및 지역 간의 상이한 현실을 인식했고, 노동조합, 협동조합, 초국가적 연대와 같은 집단적 행동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다 강력한 정책 프레임워크와 프리랜서들을 위한 보편적 보호 장치 및 부문 내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참가자들은 '존엄한 근로 조건'과 '의존성' 간의 차이, 투자를 하고 정의하며 지원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의 권력 문제, 젊은 세대에게 배제적이거나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이지 않으면서 전문성을 갖추는 방안, 그리고 예술가와 문화 노동자들이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생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편적 기본소득 또는 창의적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총회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인공지능(AI)의 윤리 및 거버넌스를 통해 문화창의부문의 미래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 전체 세션에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변호사이자 연구자이며 세계경제포럼(WEF) 위원인 미카엘라 만테냐(Micaela Mantegna)는 저작권 침해와 로열티 지급 감소로 인해 예술가들이 겪고 있는 소득 손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보편적 기본소득 또는 창의적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했다. 만테냐는 저작권 체계만으로는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이미 기존의 관행에서 라이선스 수입이 창의적 지식과 문화를 생산하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에 주로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만테냐는 기본소득이 예술가들로 하여금 정치적 우선순위나 투자 우선순위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중으로부터 기존 경제 모델에서 이와 같은 기본소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만테냐는 정부가 세금과 정책적 개입을 통해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해 온 역사적 선례를 들며 정부가 현재의 독점적 경제 시스템을 탈피해 권력 관계의 적극적인 재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본소득의 매력은 논의 내내 명백한 공감의 대상이었지만, 실질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드러났다. 예를 들어, 문화창의부문(CCS)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창의적 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분야 및 현지 노동법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또한, 창의적기본소득이 만약 가능하다면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지, 아니면 이미 재원도 부족하고 정치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는 문화 담당 기관들의 예산을 통해 관리해야 할지 여부도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문화창의부문이 직면한 문제의 범위와 성격이 지역의 맥락과 역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했고, 예술가들이 공정한 소득과 노동, 사회적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해야 한다는 포괄적 합의에 도달했다. 또한, 여타 주체들이 행동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가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역시 확인했다.

투자의 미래

문화의 미래, 문화가 지닌 사회적 가치, 그리고 그 기반을 제공하는 문화창의부문을 확보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요원하기에 적절한 투자와 자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감소한 문화 재정 지원을 회복하려면, 그리고 앞서 논의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프레임워크, 실행 모델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같은 질문이 문화 투자에 관한 논의의 핵심 사안이었으며, 참가자들은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가치 표현 방식, 창의적 활동의 투자수익률 측정 방안 등을 함께 고민했다.

호주예술위원회(Creative Australia)의 위원장인 애드리언 콜레트(Adrian Collette)는 호주에서의 문화정책 변화 사례를 소개했다. 국가를 위한 문화적·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최근의 정책적 전환추세에 따라, 호주예술위원회는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기만 하던 기존 역할을 벗어나 투자와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민간 자선단체와 기업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해 직간접적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기관은 '훨씬 더 크고 강력한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 투자 자체를 뒷받침하고, 다른 필수적인 형태의 자선 및 상업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문화재단 김해보 정책협력실 전문위원은 문화의 가치를 측정하고 정량화하며 보호하는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의 가치 프레임워크에 '탈화폐화 영역(demonetisation zone)' 즉, 문화의 무형적이고 정서적인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역할에 명시하자는 의견을 냈으며, 문화상품을 더 이상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적 매력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자고 권하면서, 공급과 수요의 측정을 만족과 불만족의 측정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 정동 경제(affective economy)의 시대에 자본의 흐름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정신의 움직임, 즉 우리의 감정적 충동과 정서이다. 이제 감정은 더 이상 덧없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측정 가능하고 저장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화폐화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한때 무형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졌던 인간 삶의 감정적 차원이 자본주의적 착취의 최전선이 된 것이다.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논의하면서, 참가자들은 크로아티아와 탄자니아의 사례도 경청했다. 크로아티아는 문화가 사회적 공공재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문화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탄자니아는 문화 부문에 대한 공공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예술가 허가 수수료를 받아 이를 새로운 작품 창작 지원에 재투자하는 실용적 방식을 채택하여 혜택을 보고 있다. 참가자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형태의 투자는 일정한 종류의 성과를 요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자선단체는 사회적 성과를 추구하고, 기업은 수익이나 다른 형태의 혜택을 바라며, 정부는 국가와 납세자들을 위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의무를 진다. 또한 참가자들은 예술가, 창작자 및 정책결정자들이 활동하는 맥락에 따라 투자의 방식과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아울러, 문화와 창의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공공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또한 공공 투자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자원, 역량 개발, 그리고 정부 및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왼쪽 위부터: 병행9_원형대화: 과거를 기리며:함께 귀 기울이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대화, 통합1에서 유엔 문화권분야 특별보고관 알렉산드라 잔타키, 월드카페 테이블 노트, 월드카페, 청중 토론에서 발언하는 다리나 지보흘랴도바, 통합 5_패널: 미래의 지평: 문화예술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로드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래 실현: 실천으로서의 길

인공지능(AI), 주체성, 그리고 행동

많은 이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기술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듯하다. 과연, 인공지능(AI)에 관한 질문은 이 시대의 주요 화두이다. 참가자들은 기술에 대해 낙관적이거나, 회의적이거나, 중도적 의견을 표하는 등 다양한 입장을 취했지만,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창의부문(CCS)의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는 점에는 다 함께 공감하며 AI는 혁신과 위험을 동시에 수반하는 양날의 칼이라는 사실에도 대부분 동의했다. 그러나, 논의를 통해 가장 명백히 드러난 것은 미래란 결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으로, 우리에게는 기술과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를, 나아가 기술에 대한 자체적, 소통적 서사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힘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즉, 기술 발전은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바로 그렇기에 디지털의 영역은 근본적으로 문화적이라는 것이다.

언어적, 문화적, 우주론적 다양성

총회의 첫번째 대담에서는 디지털 혁신, 지정학, 신화, 기술 및 공상과학(SF)을 작업에 녹여온 대한민국의 예술가 김아영(Ayoung Kim)과 캐나다 밀라 퀘벡 인공지능연구소(Mila Quebec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에서 '퍼스트 랭귀지 AI 리얼리티(FLAIR)' 이니셔티브를 공동 설립해 이끌고 있는 AI 윤리학자이자 시인인 마이클 러닝 울프(Michael Running Wolf, 노던 샤이엔 및 라코타 부족 출신)가 대화를 나누었다. 이들은 스스로의 작업을 소개하면서 문화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고민했으며 문화가 변화하는 현실에 어떻게 도전하고 적응하는지에 대해, 또한 문화가 회복력(resilience), 저항(resistance), 그리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논의했다.

러닝 울프(Running Wolf)는 자신의 작업을 돌아보며, 2018년 아오테아로아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마오리(Māori) 연구팀이 최초로 원주민 언어 음성 인식 시스템을 개발한 획기적 성과에 주목했다. 이 시스템은 공동체 참여자들이 전적으로 구상하여 지역 기술자들이 직접 개발한 것으로, 그는 이 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아 북미 원주민 언어에 대해 유사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닝 울프는 FLAIR 이니셔티브의 장기적 비전은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구동되는(산업 용어로는 엣지 AI, edge AI로 불리는) 음성 인식 기반의 언어 학습 튜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술의 개발 자체가 핵심 목표는 아니며, 새로운 언어 사용자(speakers)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이를 원주민 공동체가 주체성을 가지고 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만약 AI가 당신의 첫 번째 선택이라면, 이는 잘못된 접근이다. 왜냐하면 AI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구하며, 일종의 외부적 실체 - 즉 인공지능 데이터 파이프라인 - 에 대한 공동체의 종속을 요하기 때문이다.

러닝 울프는 챗GPT(ChatGPT)나 제미나이(Gemini)와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이 영어로 된 방대한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데 반해 원주민 언어모델에서는 언어 자체가 처한 위기와 사용자의 감소로 인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닝 울프는 유네스코(UNESCO)가 조사한 전 세계 7,000개의 언어 중 거의 절반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응하여 FLAIR는 데이터의 양이 아닌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서로 연관된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와 협력하여

집단적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다중언어(multilingual) 전략을 채택해 데이터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두 연사는 또한 기존 기술들이 언어적·문화적·우주론적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와 문화유산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언어의 문제에 대해, 김아영은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국어로 운영되는 거대언어모델(LLM)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모델은 여전히 영어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러닝 울프는 머신러닝 커뮤니티 내에서 흔히 '모든 언어는 영어의 일종이며 따라서 기술적 이전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가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가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챗GPT(ChatGPT)와 같은 도구는 전 세계 약 7,000여 개의 언어, 특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개념을 하나의 단어 안에 압축하는 고도의 복통합어(polysynthetic language)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언어의 정확성과 유연성을 영어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모호함, 오류, 의사소통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아영은 또한 철학자 육휘(Yuk Hui)가 제안한 '코스모테크닉스(cosmotechnics)' 개념을 소개했다. 이는 기술적 활동을 통해 우주론과 도덕이 결합한다는 개념으로, 휘가 2017년에 철학, 인류학, 역사 분야에서 20세기 동안 기술을 이해해 온 방식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자 도입한 개념이다(휘, 2020). 휘는 기술 발전을 지배하는 우주론이 실제 기술의 발전 방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 기술은 인류학적으로 보편적이지 않다. 기술은 단순히 기능성이나 효용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우주론에 의해 가능해지거나 제약 받는다 … 기술은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코스모테크닉스'로 존재하는 것이다(휘, 2017).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김아영은 현재 인공지능(AI) 모델의 미진한 점과 예술가들의 의도를 제대로 소통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기능적 제약을 지적했다. 또한, 그녀는 AI가 인간의 문화적 표현과 경쟁할 수 있는 유기적 실체라는 관점을 거부한다고 설명했는데, 그 이유는 AI가 의도, 고뇌, 내적 고통이나 창의적 충동을 지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러닝 울프는, AI가 지능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능적이지 못하기에 문화유산에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말하며, 이미 많은 연구가 AI의 발전이 답보 상태에 이르렀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닝 울프는 또한 AI의 위협이 거대언어모델(LLM)로부터 직접적으로 비롯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는데, 이는 이미 LLM이 대부분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소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 한편, 그는 LLM이 다음 단계의 현실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이미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지적 재산이 만인의 소유물이고 대규모 단일 조직들이 우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기에 예술가와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인류의 성공이나 공공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우리의 토지, 지적 재산, 문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원주민들에게 매우 익숙한 논리이기에, 이는 그들로부터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은 감각, 감정, 이성을 포함한 인간 경험의 전체 범위를 포괄할 수 없다.

한국 예술과 문화의 탄력적 미래상(elastic futurity)을 다룬 패널에서도, 인공지능이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우려가 한국의 학자들과 작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이들은 거대언어모델(LLM)을 통해 합성된 데이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획일화될 위험이 있으며, 데이터의 양이 특정한 문화적 표현들을 압도하고 평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특히 AI가 감각, 감정, 이성을 비롯한 인간 경험의 모든 범위를 포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집단적 기억의 형성과 보존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터 주권과 저항

김아영과 러닝 울프의 대화는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공동체의 주권을 존중하는 윤리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 학계나 정부, 기업들이 흔히 사람들의 데이터를 당연히 영구적으로 획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과는 달리, FLAIR 접근법의 핵심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공정하게 보상받고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는 데 있다. 러닝 울프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비용을 지불해 데이터를 수집하면 기술적으로는 그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지만, FLAIR는 주권을 가진 공동체 단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데이터를 제한된 기간 동안만 라이선스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0일마다 데이터 사용 동의를 갱신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며, 철회 시 시스템에서 해당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FLAIR는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기술 개발의 윤리적 수행을 위해서는 공동체와의 신뢰, 투명성, 그리고 관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전제한다.

김아영과 러닝 울프는 또한 여러 플랫폼, 앱, 주문형 서비스의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 알고리즘의 지배를 피하는 방법과 기술 행동주의(techno-activism) 및 집단 운동을 통해 저항과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러닝 울프는 개인적인 성찰을 통해 총회기간 동안 자주 회자된 생생한 비유를 제시했는데, 라코타(Lakota)와 샤이엔(Cheyenne) 부족에게는 매우 귀한 약초가 있는데, 아주 드물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채취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약초는 사암(sandstone)으로 된 바위에서 자라는 삼나무(cedar tree)에서 나오며, 이 나무의 뿌리는 딱딱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틈새와 균열을 찾아내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 우리는 서구 문화의 인공적인 구조물 안에 존재해야 하며, 그 안에서 어떻게든 뿌리를 내려 생존하고 번성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살아남은 것은 모두 저항의 결과다… 그렇게 우리의 뿌리는 단단히 내리고 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

두 번째 대담 세션에는 인도의 코지 국제예술가협회(Khoj International Artists' Association) 협회장 및 공동설립자인 큐레이터 푸자 수드(Pooja Sood)와, 오스트리아의 뉴미디어 문화·교육·과학 연구소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의 예술감독 및 운영감독이자 선구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인 게어프리트 슈토커(Gerfried Stocker)가 참여했다. 이들은 예술가와 문화 실무자들이 기술과 관계 맺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고, 기술 발전의 영향력이 날로 강해지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다양한 서사(narratives)를 지속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이번 논의의 중점 관심사였으며, 두 연사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인공지능(AI)에 맡기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공지능의 역할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수드(Sood)는 AI가 인간의 창의력을 증강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서사를 개인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현재의 형태로는 편견과 획일성을 증폭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특히, 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는 인터넷에의 접속조차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AI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와 그 가능성은 어떠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기술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토커(Stocker)는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며, 결국 기술의 변화는 우리가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AI에 대해 지나치게 경탄하고 열광한 나머지 정작 보다 중요한 질문, 즉 '우리의 세계,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슈토커는 이를 기술과 인간의 선택 및 행동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하는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기술, 특히 인공지능은 외계인이 지구로 날아와 우리를 벌하려고 떨어뜨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다. 책임도 따르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가 기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 가능한 일이다.

연사들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기술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통제와 분배의 불균형이 있기에, 우리는 사회적·교육적·접근성의 격차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슈토커(Stocker)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통제권이 대부분 유럽과 북미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수드(Sood)는 인도의 경우 인터넷 사용자가 8억 5천만 명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의

50%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며 더욱 비용이 많이 드는 AI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떨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수드는 AI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로우테크(low-tech) 솔루션이 가진 지속적인 가치를 간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인도의 젊은 예술가들이 결성한 '인킬랍(Inquilab, 저항을 뜻하는 단어)'이라는 네트워크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개방적이고 휴대 가능한 와이파이망으로, 공공 시위 현장에서 배낭에 담아 들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했다.

환경적, 사회적, 정치적 영향과 정부의 역할

기술은 우리 사회와 정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환경적·정치적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드(Sood)는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이 환경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강조했는데, 특히 데이터센터의 경우 증발식 냉각(evaporative cooling)을 위해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한다. 수드는 인도의 경우 이미 식수가 부족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빈곤한 주(州)에 데이터센터가 세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는데, 블룸버그 뉴스(Bloomberg News)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신설 데이터센터의 약 3분의 2가 이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2025년에 발표한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가 연간 약 5,600억 리터의 물을 소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2030년까지 1조 2,000억 리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한 MIT는 2025년 기사에서 최근 연구를 인용하며 한 개인이 챗GPT(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할 때마다 단순 웹 검색보다 약 5배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2026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센터가 소비할 전력이 최대 1,050 테라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며, 그럼으로써 데이터센터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러시아와 일본 사이) 많은 전력의 소비자가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두 연사는 사람들이 개인 차원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디지털 공간의 엄밀한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앞서 데이터 및 노동 조건, 사회적 보호에 대해 진행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 통제의 경우 역사적인 권력 남용의 선례와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주요 쟁점이다. 슈토커(Stocker)는 유럽에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공간의 거버넌스가 정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하며,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선구적인 입법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런 한편, 권위주의를 경험했거나 옛 동독 체제를 기억하는 이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아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드(Sood)는 정부만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일부 국가가 도입한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의 경우 진보적이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한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기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적 차원에서, 수드는 최근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 '스포닝 AI(Spawning AI)'를 소개했는데 이 도구는 예술가들이 손쉽게 자신의 작품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AI 학습 모델의 작품 데이터 사용 방지 기능을 제공한다. 슈토커는 원칙적으로는 이런 선택권이 긍정적이라고 동의했지만, 기업이 이 설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결국 규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가장 빠른 총잡이(gunslinger)를 우대하는 방식(선점 효과)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장기적으로는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문화의 설 자리 설정과 비판적 사고

혁신에는 호기심, 용기, 창의성이 필요하다. 슈토커(Stocker)는 인간의 혁신이 언제나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문제에 직면할 경우 기술은 그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아이디어를 내려면 호기심과 용기를 갖춰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런 점에서 혁신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으로서 문화예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드(Sood)는 많은 이들이 혁신을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의 영역으로 생각하지만 예술가들이야말로 사회의 진정한 모험가(risk taker)라며 우리가 예술가들이 기술 기업 및 기술 연구소와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슈토커는 또한 창의성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원자재처럼 취급하는 데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창의성은

석탄이나 철광석처럼 땅에서 캐낼 수 있는 자원이 아니며, 창의적 생태계 안에서 끊임없이 돌보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수드(Sood)와 슈토커(Stocker)는 문화가 타 부문과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 그 자체가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슈토커는 문화 부문이란 사회의 모든 영역과 연결되어야 하는 한편 예술과 문화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가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예술의 무조건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끝까지 지켜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치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는 우리가 지금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업적, 재정적인 압박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와 예술가들의 프로젝트가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기술 담론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기술 담론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우리가 기술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감탄할 필요 없이 기술과 그 한계에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변하는 교육과 예술적 전복(subversions), 특히 유머와 재미를 활용한 접근법의 장점에 주목했다. 슈토커는 사회가 기술을 보다 나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는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는 문화 및 교육 기관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며, 민주주의와 사회, 문화를 위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비판적 사고를 통해 기술을 유능하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사들은 독점에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잠재적 전략들도 고려했다. 수드는 독점을 깨는 효과적인 도구이자 일종의 무기로 오픈소스를 제시하며, 중국에서 개발한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오픈소스 시스템의 사례를 들어 비록 이러한 시도들이 꼭 이타적인 동기로부터 비롯하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독점을 타파하는 좋은 방법임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수드는 AI가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픈소스 툴을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으며, 참여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아직 완벽하지 않더라도 직접 참여해 써 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슈토커는 미래에 완벽하게 대비하기란 불가능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가올 충격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강력한 기술로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며 지금의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렇게 한다면 모든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결국 뒤처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우리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술과 문화 분야의 사람들이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우리는 이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세계에서 왔다. 바로 스토리텔링의 세계, 야망과 적극성을 지닌 이들의 세계, 예술과 문화가 이루어지는 멋진 공간과 장소의 세계다. 이것이 진정 필요한 것이다. 기술은 결국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윤리와 거버넌스

총회 2일차에는 인공지능(AI)의 윤리와 거버넌스, 그리고 문화창의부문(CCS)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하는 통합세션이 열렸다. 나이지리아 CcHub 산하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 프랙티스(Creative Economy Practice)의 공동창립자이자 Co-creation HUB A아프리카 운영 감독인 오조마 오차이(Ojoma Ochai)가 사회를 맡았으며,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교수인 이진준 박사와 아르헨티나 출신 변호사이자 연구자인 미카엘라 만테냐(Micaela Mantegna)가 연사로 참여했다. 오차이는 여러 남반구 지역 국가의 경우 도로, 교육, 문해력, 인터넷 접속과 같은 기초적 인프라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AI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그런 한편, 오차이는 지금이야말로 AI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이들이 미래의 이야기 전달 방식, 예술가 보상 방식, 문화 표현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차이는 생성형 AI 도구, 머신러닝, 추천 시스템 및 알고리즘 등 AI 기술 분야를 전반적으로 모두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각각의 기술이 창작자와 예술가, 문화적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윤리 및 거버넌스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윤리란 그저

> 바람직한 AI의 특성, 즉 공정성, 포용성, 인간의 창의성과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존중 등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버넌스는 그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규칙과 규제, 규범 및 감독 체계를 통해 윤리가 모든 곳에서, 모든 이에게 제대로 구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 비판적 사고

세션에서 연사들은 교육과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앞서 AI를 다룬 월드카페 세션에서 토론자들이 AI 교육을 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평생학습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한 내용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진준 박사는 기술이 혜택과 편리함을 가져왔다고 인정하면서도, 이가 곧 세상의 개선을 뜻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단순히 디지털 리터러시를 넘어선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AI를 활용하는 법뿐 아니라 우리가 AI 사용으로 인해 상실하게 될지도 모르는 인간의 능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존과 번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비판적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테냐는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최근 연구를 인용해 생성형 AI 사용이 인간의 뇌와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기술 의존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오차이는 교육의 필요성은 젊은 세대나 창작자들에 국한되지 않으며, 문화창의부문(CCS)을 지원하는 정책 입안자와 문화기관 및 중개자들 또한 디지털 세계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과 중요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AI와 기술 분야의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술과 문화에 투자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시사점도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만테냐는 우리가 이미 인간과 AI, 또는 이 둘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구별하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예술가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준 박사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독창적 작품 창작을 지원하고 예술가들을 AI의 작품 활용 사례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시스템에 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한 가지 방안으로, AI를 사용했거나 AI와 협력해 제작한 작품을 식별하기 위한 'AI 인증서' 발급을 제시했다.

규제와 숨겨진 비용

보다 철저하고 윤리적이며 유연한 규제의 필요성 역시 이 세션의 주요 논점이었다. 만테냐는 문화창의부문(CCS)이 현재 AI와 관련해 규제와 혁신이라는 양자택일적이고 배타적인 상황 속에 갇혀 있으며, 제로섬 게임처럼 중간지대가 없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논쟁의 범위를 저작권 대 AI의 구도로만 한정하면 데이터와 노동에 관한 보다 큰 차원의 문제들을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만테냐는 우리의 온라인 환경을 무해하게 유지하기 위해 충격적인 폭력과 학대의 이미지를 처리하면서 시간당 2달러를 받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 노동자(ghost workers)'들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윤리는 다차원적인 만큼 문제의 구조적·체계적·복합적 성격을 반영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차이는 AI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적절한 거버넌스 체계를 누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진준 박사는 기술 기업들의 경우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에 자율적인 규제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만테냐는 시민사회, 학계,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 거버넌스와 다자적 이해관계자 프레임워크의 역사적 사례로부터 그 성패를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 불법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은 결코 같지 않다. 우리가 어떤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데 동의하더라도 이가 불법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불행히도 깊이 있고 기술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연사들은 또한 편리성의 함정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윤리를 능동적으로 고려하고 주체성을 행사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라고 했다. 만테냐는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의 편리성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누가 이 과정에서 가려지는지, 누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등과 같은 숨겨진 비용을 무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가 챗GPT나 유사한 시스템에 무언가를 입력할 때마다 생성되는 정보는 결코 사적이라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미 프라이버시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데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오차이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AI는 앞으로 다가올 그 무엇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와 있다. AI는 우리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 누가 그 이야기를 보고, 누가 혜택을 얻는지를 결정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개입해야 할 순간이다. 다른 사람들이 규칙을 정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교육하고, 공정성과 포용성, 윤리적 AI를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무엇보다 문화창의부문이 이 논의에서 당당히 설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경험한 대표적 분야로서 음악 부문이 디지털 혁신에 어떻게 적응했는지에 대해 다루는 병행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과거와 타인의 경험에서 배우는 능력 또한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패널들은 문화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단기적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장기적인 투자와 공정하고 투명한 디지털 관행의 촉진, 그리고 지식재산권, 공정한 보상 및 플랫폼의 책임성 문제를 다루는 거버넌스와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체성 회복과 행동 개시

유네스코의 「2021 인공지능 윤리 권고안」 초안 작성에 참여한 국제 전문가 그룹의 일원이자 철학자 겸 디지털 출판인인 테세오(Teseo)의 디렉터 옥타비오 쿨레츠(Octavio Kulesz)가 진행한 워크숍에서는 AI 해독을 주제로 토론자들이 주체성의 문제와 필요한 행동을 함께 모색했다. 워크숍 서두에서 오늘날 AI를 둘러싼 여러 담론이 인간을 무력한 존재로 묘사하거나 기술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자연적 힘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담론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은유와 신화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의 상호연결성을 인정하는 사회기술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워크숍에서 토론자들은 5개 주제 영역(AI와 예술창의산업; AI와 언어적 다양성; AI의 지정학적 특성; AI 윤리 및 규제; AI 담론)에 대한 소그룹 토의을 진행했다. 각 그룹은 특정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문화창의부문의 시각에서 AI의 기회와 과제, 트렌드 및 미래 전망을 포괄적으로 고찰하며 의견을 모아나갔다.

토론자들은 AI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의 모든 문화 부문을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지닌 양날의 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보다 강력한 거버넌스와 문화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독점 행위를 제한하고 데이터 및 원자재와 관련된 착취적 관행을 억제해야 하며, 인권을 보호하는 규제가 필요하고, 국가의 기술 정책에 문화적 요소가 명확하게 포함된 국가적 차원의 AI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예술과 문화의 탄력적 미래상(elastic futurity)을 주제로 한 병행 세션에서도 제기되었으며, 패널들은 문화창의부문(CCS)을 포괄하고 대안적 미래를 탐색하며 문화 주체들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주체성에 대해서는 기술을 단순히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 구축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술 형성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토론자들은 앞서의 대담과 전체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되짚으며 문화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AI 문해력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데이터셋과 AI 시스템의 투명성이 예외가 아닌 일반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문화 부문이 AI 담론에서 일정 부분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만큼 문화적 권위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개념적 도구와 작업 방식을 상상하고, 인공(artificial)의 영역은 근본적으로 문화적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션을 마무리하며, 쿨레츠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다. "기술 낙관주의나 절망, 그 어느 쪽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주의와 창의성, 그리고 헌신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 협력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와 국제 협력 및 초국가적 교류 또한

이번 총회의 주요 주제였다. 월드카페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초국가적 문화 관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변화하는 세계와 지역적 파급효과에 관한 패널, 초국가적 문화 교류를 다룬 롱테이블, 2030년 이후의 유엔 의제에서 독립적 문화 목표 설정 가능성에 대한 패널을 진행했다. 또한 폐막을 앞둔 통합 세션에서는 유네스코 문화담당사무총장보 에르네스토 오또네 라미레즈(Ernesto Ottone Ramirez)가 미래의 전망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제 관계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학은 지역적 맥락과 일상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참가자들은 AI의 채택과 확산을 과거 철도와 증기기관부터 전신과 라디오에 이르는 과거 기술들의 경우와 비교했다. 당시 지역 및 원주민 공동체들에게는 해당 기술의 개발 및 거버넌스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따라서 그저 상당한 영향을 받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또한 참가자들은 세계 각지의 지역, 국가, 지역개발 의제와 문화, 기술, 자연이 교차하는 지점을 발견했으며, 기술이 초래하는 파괴적 효과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국가적, 글로벌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자체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초국가적 문화교류와 이동성은 아이디어와 사람,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에 기반한 국제 협력의 핵심이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국제적 연결성을 통해 보다 호혜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성을 국가 경계를 초월한 오랜 전통이자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밀접히 연결된 인권으로 규정하면서도, 문화교류 및 이동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장애 요인을 언급했는데, 이는 여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비자·자금·정보 접근성 문제, 원주민 예술가의 국제 교류에서의 대표성 부족, 예술적 표현과 국가적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는 압박 사이의 긴장 등을 포함했다. 또한, 이동성과 초국가적 교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관해 논의했으며, 공정한 관행에 기반한 파트너십 개발과 공동 창작, 협력의 기회들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몬디아컬트(MONDIACULT)와 같은 국제 포럼을 포함한 문화 거버넌스 영역에서 호혜적 문화 교류를 더욱 강조하고 가시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엔의 2030년 이후 의제에서 문화 부문의 독립 목표 설정을 논의하는 패널 세션은 본 총회와 같은 국제적 플랫폼이 합의된 우선순위를 마련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연사들은 역사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에서 문화의 위치를 어떤 식으로 규정해 왔고 또 다른 의제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어떻게 정당화되어 왔는지 검토하면서, 스페인과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글로벌 의제에서 문화가 확실하게 설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베트남 정부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국제적 프레임워크를 성공적으로 활용해 자국의 발전목표(VDGs)를 수립하고, 그 안에 구체적인 문화 관련 목표를 설정했다. 스페인에서도 이러한 문화 중심적인 접근을 사회·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채택했으나, 문화적 권리를 우선순위에 두거나 모든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2030년 이후 의제와 관련하여, 대표단은 문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전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며, 이는 인공지능의 영향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프레임워크는 문화창의부문(CCS) 외부의 다양한 집단들도 참여해 구축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문화 부문 외에서도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 한편, 참가자들은 문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가치를 평가할지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열려 있으며, 보다 폭넓은 정책적 논의에서 여타 분야가 문화를 우선순위로 삼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의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양한 관점과 정의가 존재한다는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문화가 없는 미래는 존재할 수 없으며 글로벌 거버넌스와 각국 정부 차원에서 문화를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한 긴급하고 협력적인 행동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총회 마지막 날,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한 청중토론에서는 모든 문화 생산자와 예술가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으로서 미래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의 중심에 전통지식과 전통문화 표현이 반드시 자리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퍼시픽 커뮤니티(Pacific Community)의 문화개발팀 리더 프랜시스 C. 코야 바카우타(frances C. Koya Vaka'uta)는 전통지식이 문화에 관한 독립 목표의 핵심적

차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성과 생존의 근본'이라는 표현을 통해 참석자 모두가 이 의제를 계속해서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더욱 강력한 차원의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이 토론에서 재확인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참가자는 남반구 국가들 간의 협력 가능성을 제기하며, 서구 국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지 않도록 예술가들이 개입의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물었다. 또 다른 참가자는 AI가 원주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국제적 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원주민의 살아있는 문화와 유산을 보호하고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이들이 다시금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참가자는 문화창의부문(CCS)의 실무자와 시민사회, 정부를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지식과 학습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국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참가자는 예술가부터 정부 기관, 국제기구까지 모든 조직 수준에서 공감에 기반한 국제적 연대의 문화가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고민해 볼 것을 요청했다.

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는 총회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주요 논점이었다. 보츠와나의 야생 보호구역 근처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이자 큐레이터인 아탕 L. S. 아놀드(Atang L.S. Arnold)는 협력이 흔히 반복되는 구호임을 지적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는 학제 간, 국경을 넘는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 농촌 및 소외된 창의적 공동체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도구와 재정적 자원을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현지화해야 한다. 수익을 넘어서는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을 지닌 이니셔티브에 투자해야 한다. 기관과 조직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책임을 요구하고,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

유네스코의 오또네 사무총장보는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다가오는 2025년 몬디아컬트(MONDIACULT) 를 구체적인 행동으로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며, 문화적 권리는 글로벌 문화 거버넌스의 최우선 과제라는 전제 하에 문화를 사회의 살아있는 직물과 같다고 표현했다. 문화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며 사회적 응집력과 평화, 안보의 기반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강화하며, 혁신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다. 그런 한편,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화가 디지털 혁명과 교육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따라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 이는 공동의 책임이며 어느 한 국가나 기관, 공동체가 단독으로 달성할 수 없다. 문화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와 민간 부문, 예술가와 지역사회의 리더들이 모두 이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왼쪽 위부터: 월드카페에서 시슬레 제이콥스, 병행1_패널: 한국 예술과 문화의 탄력적 미래상: 비판적 고찰에서 신혜린, 대담 1에서 김아영과 마이클 러닝 울프, 대담 2에서 푸자 수드와 게어프리트 슈토커, 통합 2_패널 문화창의부문(CCS)의 건설적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AI윤리와 거버넌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론: 나침반으로서의 문화

2025년, 우리는 서울에 모여 문화가 인류의 나침반이 될 미래를 그려보았다. 문화는 발빠르게 진행되는 기술적 변화와 새로운 삶의 방식의 필요성을 초래하는 기후 위기, 그리고 오직 상호이해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분열 속에서 기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총회에서의 논의는 광범위했지만, 건설적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분명한 메시지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문화는 근본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 주된 가치는 사회적이다. 즉, 문화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나타내며, 살기 좋은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은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이는 살아있는 문화, 언어, 원주민 지식체계와 함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일도 포함하며, 문화적 권리는 단지 그 도구적 혜택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 종사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조건도 중요하며, 공정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문화의 장기적인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모델의 개발과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시스템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접근과, 문화를 여타 주요 정책과 등가로 놓아 정치적 격변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 전반에 걸친 전략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발전은 외부적, 강제적인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기술은 인간의 선택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문화적 영역에 속한다. 사회가 기술에 의해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되며,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주체성을 발휘해 기술이 사회에서 맡을 역할을 창의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창작자에서 정책입안자까지 모두가 문화 생태계 전체에 걸쳐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를 발전시킴으로써 문화창의부문(CCS)이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기술 발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 협력은 필수적이며, 우리에게는 함께, 신속히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정의로운 미래를 그렸다. 이 비전을 실현하려면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며, 우리에게는 함께, 신속히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어떤 정부나 기관, 공동체도 단독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분야, 학문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술가와 정부 및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함께 협력해 문화가 사회에서 확고한 위치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030년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의제를 준비하는 지금,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에서의 논의는 문화를 우선적 지위에 놓고 이를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후쿠야마, F. (Fukuyama, F.) (1999). Social capital and civil society / 사회적 자본과 시민사회. 조지메이슨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Institute of Public Policy, George Mason University). https://www.imf.org/external/pubs/ft/seminar/1999/reforms/fukuyama.htm (접속일: 2025년 6월 28일)

유네스코 독일 위원회 (German Commission for UNESCO) (2024). Fair Culture Charter / 공정 문화 헌장. German Commission for UNESCO. https://www.unesco.de/en/topics/culture/fair-culture-1/ (접속일: 2025년 6월 28일)

후이, Y. (Hui, Y.) (2017). Cosmotechnics as cosmopolitics / 코스모폴리틱스로서의 코스모테크닉스. e-flux (86). https://www.e-flux.com/journal/86/161887/cosmotechnics-as-cosmopolitics/ (접속일: 2025년 6월 15일)

후이, Y. (Hui, Y.) (2020). COSMOTECHNICS / 코스모테크닉스. Angelaki: Journal of the Theoretical Humanities, 25(4), 1–2. https://doi.org/10.1080/0969725X.2020.1790828 (접속일: 2025년 6월 28일)

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IFACC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2024). Culture as a Public Good: Navigating its Role in Policy Debates / 공공재로서의 문화: 정책 논의에서의 역할 탐색. IFACCA. https://ifacca.org/news/2024/07/18/culture-public-good-navigating-its-role-policy-deb/ (접속일: 2025년 6월 28일)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5). Energy and AI / 에너지와 인공지능. IEA. (출판지: 파리) https://www.iea.org/reports/energy-and-ai (접속일: 2025년 6월 16일)

니콜레티, L., 마, M., & 배스, D. (Nicoletti, L., Ma, M., & Bass, D.) (2025, 5월 8일). AI is draining water from areas that need it most / AI가 가장 물이 필요한 지역의 수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Bloomberg News. https://www.bloomberg.com/graphics/2025-ai-impacts-data-centers-water-data/ (접속일: 2025년 6월 16일)

OECD (2024). How's Life? 2024: Well-being and Resilience in Times of Crisis / 삶의 질은 어떠한가? 2024: 위기 시대의 웰빙과 회복탄력성.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90ba854a-en (접속일: 2025년 6월 10일)

United Nations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세계 인권 선언. 채택일: 1948년 12월 10일. https://www.un.org/en/about-us/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 (접속일: 2025년 6월 28일)

United Nations (2007).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 채택일: 2007년 9월 13일.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606782?ln=en&v=pdf (접속일: 2025년 6월 28일)

유엔 인권이사회 문화권 특별보고관 (UN Human Rights Council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2019). Cultural rights: Tenth anniversary report / 문화적 권리: 10주년 보고서.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3793215?ln=en&v=pdf (접속일: 2025년 6월 28일)

유네스코 (UNESCO) (1982). The Mexico City Declaration on Cultural Policies / 멕시코시티 문화정책 선언. 채택일: 1982년 8월 6일.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050419 (접속일: 2025년 6월 28일)

유네스코 (UNESCO) (200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채택일: 2005년 10월 20일.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42919 (접속일: 2025년 6월 28일)

유네스코 (UNESCO) (2022). Recommendation on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안. 채택일: 2021년 11월 23일.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1137 (접속일: 2025년 6월 28일)

유네스코 (UNESCO) (2022).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MONDIACULT 2022 Final Declaration / 문화정책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회의 2022 최종 선언. https://www.unesco.org/sites/default/files/medias/fichiers/2022/10/6.MONDIACULT_EN_DRAFT%20FINAL%20DECLARATION_FINAL_1.pdf (접속일: 2025년 6월 28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2024).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관한 조약. 채택일: 2024년 5월 24일. https://www.wipo.int/treaties/en/ip/gratk/ (접속일: 2025년 6월 28일)

제위, A. (Zewe, A.) (2025, 1월 17일). Explained: Generative AI's environmental impact / 설명: 생성형 AI의 환경적 영향. MIT News. https://news.mit.edu/2025/explained-generative-ai-environmental-impact-0117 (접속일: 2025년 6월 28일)

문화프로그램

올해의 문화프로그램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성을 발휘해 온 한국의 개방성과 회복탄력성을 토대로 준비하였습니다. 공기 중의 흐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소망을 의미하는 우리말 '바람'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바람은 국경과 분야를 넘어 막힘없이 흐르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흩어졌다가도 다시 새롭게 불어오는 회복탄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ARKO가 준비한 바람은 문화와 예술을 대하는 활짝 열린 마음과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다시 일어서는 힘을 담아 새롭게 불어오는 미래를 닮았습니다. 그 바람이, 예술이 다가올 시대와 나눌 새로운 인사이자 우리가 함께 떠올린 미래의 첫 숨결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에서 불어온, 한 줄기의 바람을 참가자들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막만찬

개막만찬은 공간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길을 드는, 과거의 유산과 현재의 창조가 공존하고 있는 DDP(동대문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600여년 전 지어진 이간수문의 길을 따라 현대적인 감성을 갖춘 DDP에 모여 총회의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전통적인 한식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한식 정찬이 제공되었으며, 종묘제례악과 전통 가곡을 현대적인 엠비언트와 테크노로 재해석한 '해파리'의 공연을 감상하며 시대를 넘나드는 감각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리움미술관

어떤 흐름은 서로 만나 더욱 강해집니다. 문화와 예술은 서로 교류하고, 다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더욱 창조적으로 거듭납니다. 2004년 서울의 심장부인 한남동에 문을 연 리움미술관은 이런 교차점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세계적 건축가들이 모여 설계한 이 공간은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를 막힘없이 연결하며 그 자체로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만들어 냅니다. 리움에서는 한국 전통미술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함께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고미술과 현대미술의 다채로운 흐름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총회 이튿날 저녁 참가자들은 리움에 모여, 자신의 문화와 서로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나누며 다양성이 가져오는 창의적 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잔치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 불면, 한국에서는 한 해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단오'날이 다가옵니다. 양기가 가장 강하다는 이 날, 농부들은 힘겨웠던 모내기를 마친 뒤 한 자리에 모여 풍년을 기원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총회의 마지막 밤, ARKO는 단오의 잔칫날을 재현하며,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멈춘 듯 보여도 다시 흐르는 의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선조들이 먹었던 제철 재료로 만든 전통 음식을 맛보고, '범 내려온다'의 안무로 잘 알려진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춤과 음악을 즐기며, 공기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같은 민속놀이를 통해 전통 문화를 나누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날 함께했던 잔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하게 이어지는 연결감, 그리고 서로를 북돋우는 문화와 예술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폐막오찬

대학로는 골목마다 ARKO의 바람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대학로는 마로니에공원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극장들이 자연스레 모여들면서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ARKO가 운영하는 여러 공간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번 총회의 메인 베뉴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총회 마지막날은, 대학로의 거리에서 자유롭고 생기 넘치는 일상의 모습으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들을 소개했습니다. 폐막오찬에서 나눈 음식과 이야기가 서로 다른 우리의 경계를 허무는데 도움이 되어, 참가자들께서 품은 새로운 영감이 각자의 일상에서도 다시금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왼쪽 위부터: DDP에서 열린 개막만찬에서 참가자들, 스테이지28에서 열린 잔치에서 참가자들, 폐막오찬, 잔치에서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의 글

제10차 문화예술세계총회는 여러 기관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IFACCA(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국제 연합)는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삼성문화재단

CJ문화재단
Korea through the 5enses™
Moet & Chandon
노르딕문화기금
노르웨이문화예술위원회
동아오츠카
복순도가
서울관광재단
스웨덴예술위원회
아시아유럽재단
예술의전당
주한노르웨이대사관
캐나다예술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제프로그램자문위원회(International Programme Advisory Committee): 사라 압두 부슈라, 카디자 엘 벤나위, 앨폰스 카라부다, 옥타비오 쿨레츠, 이진준, 플루언 프림, 푸자 수드

월드카페 테이블 호스트: 권용민, 크세니아 그라오바크, 안드레스 그리브니코우, 김해보, 나혜영, 제소니 나가, 기기 낸시, 말라야 델 로사리오, 마우리시오 델핀, 다이앤 도드, 메추 라펠라, 마리 르 수르, 이소벨 마누엘, 봉이 맥더모트, 닉 맥도웰, 백교희, 펠리페 빌라르마르초, 자우메 사우라, 마리아-크리스티나 수므레, 신혜선, 타이워 아폴라비, 아이카 알레미, 라르스 에베르트, 레이 엘씨, 이수훈, 마커스 자크리슨, 장수혜, 전강희, 시슬레 제이콥스, 미치 존스, 니우샤 칸모함마디, 록산느 콘코, 발레리 퀴레즈, 딘코 클라릭, 타조 테케, 오딜라 트라이벨, 한하경, 파예 홉슨

이번 총회에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해주신 100여 명의 연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레스와르 갈라
구자혜
신 구
안드레스 그리브니코우
레누 기미레
김아영
김해보
김희선
김갑수
크리스틴 다니엘슨
데레카 델레보-그랜트
마우리시오 델핀
다이앤 도드
질 도레
실비 뒤랑 살바띠에라
줄리 디포파
카이사 라빈
무함마드 지크리 빈 압둘 라흐만
차이마 람지 자아투트
마이클 러닝 울프
다이애나 레이
움베르토 로페스 라 베야
캐시 롤랜드
카이사 뢴쾨
마리 르 수르
미카엘라 만테냐
로이신 맥도너
디에고 멘카로니
사이먼 멜러
앙헬 모레나
막달레나 모레노 무히카
프랜시스 코야 바카우타
박지선
박양우
하스민 알레한드라 베이라크 울라노스키
에두아르도 사라비아
지미 사비
셰인 샤피로
피나 소
안드레스 펠리페 솔라노
푸자 수드
잉가-릴 순세트
게어프리트 슈토커
신혜린
심희진
아탕 L.S. 아놀드
토니 아타드
호세 안토니오 안칸 하라
아이카 알레미
소피아 알렉산데르손
압둘라 알카프리
산티아고 알파로 로톤도
알라스터 에번스
팔로마 에스테베스
카디자 엘 벤나위
레이 엘씨
마노즈나 옐루리
에르네스토 오또네 라미레즈
오조마 오차이
저스틴 오코너
크리스토퍼 와이워리
에바 마리 왕
삼바 용가
유상근
파라이 음푼냐
응우옌 프엉 화
이진준
이준
알렉산드라 잔타키
전윤형
전유진
정병국
정세랑
시슬레 제이콥스
조정윤
에이브릴 조프
준 에이 퓨
다리나 지보흘랴도바
미셸 차울라
최지원
히로코 츠보이-프리드먼
만카 A. 치핀디
파울라 카
야리 카마라
에밀 카이루아
니우샤 칸모함마디
버넌 조셉
애드리언 콜레트
조 쿠카타스
옥타비오 쿨레츠
하켈 다 크루즈 리마
수재나 탄템사
하니코 테 쿠라파
네베나 투도르 페르코비치
하이얜 투알리마
토마스 페테르스
파블라 페트로바
파스 포르탈레스
플루언 프림
로베르트 피아스코프스키
케드몬 마파나
마르시아 홀렌베르그
홍기원
아비드 후세인

보고서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IFACCA의 메레디스 오켈(주 작성자), 제사 멜리코, 파라이 음푼냐, 사라 본드, ARKO의 전수빈, 권용민, 나혜영, 조강주, 한하경, 파이카의 하지훈 작가님께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artsummit.org

#ArtsummitKorea

IFACC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한국문화예술위원회